

INTENSITY SPL



VOYAGE BEYOND GENERATIONS

For over 135 years, Hartmann has defined the luxury travel experience through exquisitely crafted luggage and a strong commitment to innovation in the ever changing landscape of travel.

hartmann
INSPIRED LUXURY
SINCE 1877

청담몰레그점 02 3448 5914 현대무역센터점 02 3467 8710 IFC몰점 02 6137 5592 HOS로엑스점 02 551 0667 신세계본점 02 310 1510 롯데김포몰점 02 6116 5398 현대본점 02 3438 6005 워커힐면세점 02 450 6379 롯데잠실점 Coming soon HARTMANN.COM

Style

조선일보

AUGUST 2015 vol.128



TIFFANY & Co.
NEW YORK SINCE 1837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Idyllic Pont des Amoureux
Poetic Complications watch, white gold,
diamonds, "contre-jour" enamel,
mechanical movement with
retrograde hours and minutes.



52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세계적인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에서 선보이는 광고 캠페인이다. 진정한 사랑, 그리고 전 세계 위대한 러브 스토리와 함께 해온 티파니는 "영원히 함께할까요? Will You?" 라는 타이틀 콘셉트 아래 뉴욕을 배경으로 커플들의 만남에서부터 결혼까지 다양한 단계의 로맨틱한 순간을 담았다. 문의 02-547-9488



32



08

- 12 **FRIDA'S SOUL IN CASA AZUL** 과연 프리다 칼로의 진짜 모습은 어땠을까. 멕시코 코요아칸의 피란 집에서 그녀의 혈육이 전하는 생생한 이야기.
- 14 **MAKE A MAN** 결혼이라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잘 만든 구두 한 켤레다.
- 16 **CANDY SHADES** 지금 가장 핫한 선글라스의 공통점은 마치 장난감처럼 귀여운 디자인을 가미했다는 점이다.
- 18 **ROMANTIC CASE** 신혼부부의 트러블 케어.
- 20 **THE LOVE AND MARRIAGE** 사랑의 순간, 이를 영원히 기억하게 할 특별한 웨딩 주얼리와 워치 컬렉션이 여기에 있다.
- 28 **HEALING NIGHT** 신혼부부의 완벽한 힐링 공간을 완성할 네 가지 베딩 컬렉션.
- 29 **SWEET MACHINES** 집 꾸미는 자리에 꼭 빠져 있을 예비 신혼부부에게 강력하게 어필할 미니 가전 컬렉션.
- 30 **THE MOST PRECIOUS HERITAGE** 작년 7월, 새로운 여성복 디렉터를 영입한 에르메스의 선택에 전 세계 패션 파벌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과연 그 선택은 옳았을까?
- 31 **HOUSE OF DIOR** 디올 쿠티유와 20여 년을 함께해온 시드니 톨레다노(Sidney Toledano) CEO와의 인터뷰.
- 32 **WHITE DREAM** 2015 F/W 이탈리아 클래식 드레스 컬렉션.
- 40 **TIMELESS FRENCH CHIC** 로베르 골라제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롤랑 무레(Roland Mouret)를 만났다.
- 41 **SYMBOL OF LOVE** 티파니 웨딩 링의 반짝임에 뉴욕의 모던 클래식을 더한 티파니 워치가 함께한 멋진 웨딩.
- 42 **FOREVER CLASSIC** 다양한 디테일을 가미한 뉴 클래식 백.
- 43 **FIND THE ONE** 다이아몬드에 최고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한 타사 키의 노력이 찬란한 웨딩 링으로 결실을 맺었다.
- 44 **LUXE FOR WEDDING** 까다로운 러시아 왕족들과 뉴욕의 상류층을 사로잡은 퍼 브랜드 제이 멘델.
- 45 **ONLY FOR ONE** 루시예, 니와카, 뉴욕 니와카를 모두 만날 수 있는 주얼리 부티크 라벨리에 뒤 레브(L'atelier du Reve).
- 46 **A VERY SAVORY COLLABORATION** 세계적인 셰프들이 돔 페리뇽의 정수를 재감할 수 있는 창조적 협업을 펼치고 있다.
- 47 **HAPPY TOGETHER** 열렬한 사랑의 기억을 깨는 카메라로 선명하게 남기고, 포토 프린터로 기록한다면 모든 순간이 생생해진다.
- 48 **CUTTING EDGE** 정통 골프 웨어 브랜드 만싱웨어의 카툰 옛지 컬렉션은 골퍼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 50 **EDITOR'S PICK**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이 추천하는 뷰티 아이টে 주목할 것.
- 51 **WILD ARCTIC BEAUTY** 북유럽 스타일을 대표하는 핀란드 화장품 브랜드 루메네의 자선장.
- 52 **ALL-INCLUSIVE LUXURY RESORTS** 가까운 곳에 위치한 럭셔리 리조트, 클럽메드 동요 리조트로 향해보자.



Style 조선일보

Issue.128 August 2015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j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김지혜 jhy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동일 c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사법 그래픽스
 인쇄 | 타리타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동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사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FENDI.COM

FENDI

Jewel DEEP IMPRESSION

진실한 사랑의 강렬한 증표,
유니크 커플 링 컬렉션.

(오른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꽃에서 영감을 받은 강렬한 자스틴 앵글루 커플 링,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버전 3백50인원대, 로즈 골드 버전 2백90인원대 모두 **카르띠에**, 일파렛 T의 강렬한 느낌을 고안한 핑은 T 컬렉션, 화이트 골드 티파니 T 스퀘어 링 1백만원대, 티파니 T 다이아몬드 와이 어 링 2백만원대 모두 **티파니**, 세라믹 소재에 솔라이어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올트라 링, 각 4백만원대 모두 **샤넬 화이트 주얼리**, 불꽃과 장수를 상징하는 뱀에게서 영감을 받은 세르펜티 웨딩 밴드,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 세팅 밴드 5백만원대, 화이트 골드 밴드 5백만원대 모두 **발랑티노**, 에디터 **베이진**

Fashion ROMANTIC MOMENTS

신부에게 로맨틱한 화이트 컬러가 불변의 진미이듯, 속옷에서도 레이스가 여전한 강제다. 사랑스러움과 섹시함이 공존하는 상반된 매력 때문일까. 달콤한 첫날밤처럼 보기만 해도 설레는 레이스 러블리의 향연.

(오른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프랜치 리버스 레이스로 제작된 페루니아 브라, 인종맞은 폴리아 자수를 더해 감쪽같이면서도 속히 훑히 비치는 스타일로, 은근한 섹시미가 느껴진다. 23만8천원 **아랑 프코르티코**, 실크 소재 소재에 100% 핸드메이드의 정교한 자수와 뿔을 기이한 87 메종 세트, 신축성과 착용감이 좋은 실크 리제리르 하나의 작품 같은 느낌을 준다. 브라 42만1천원, 팬티 26만3천원 모두 **라벨라**, 고급스러운 레이스와 와이 어 라인을 따라 장식한 새틴이 여성미를 뽐내는 핑은 브라 10만원대, 팬티 5만원대 모두 **엘포코 이브라니 언더웨어**, 과하지 않은 소녀스러운 레이스가 눈길을 끄는 러블리 세트, 브리에 와이 어가 없어 편안하고, 섹시함보다는 사랑스러운 느낌을 연출해준다. 브라 17만9천원, 팬티 11만원 모두 **프린세스 팀팜**, 로맨틱한 레이스로 가슴 하단을 장식한 새틴 일루어 브라, 부드러운 촉감이 특징으로 스트랩을 탈착할 수 있어 어깨가 많이 드러나는 의상을 입을 때도 문제없다. 또 두꺼운 밴드가 보디라인을 잡아주어 슬림한 몸매를 부각한다. 40만5천원 **라벨라**, 에디터 **김지혜**

Lifestyle POP THE CHAMPAGNE!

축제가 필요할 때, 다없이 특별한 날을 기념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샴페인이다. 프랑스 왕궁의 여인들은 '샴페인은 마시고 난 후에도 여인을 아름다워 보이게 하는 유일한 술'이라 표현했고, 메릴린 먼로는 3백50병의 샴페인으로 목욕하고 마치 산소를 들이 마시듯 샴페인을 즐겼다. 샴페인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손으로 코르크를 꼭 누르면서 요란한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열어야 한다. 물론 병 소리가 나면서 거품이 흐르게 하는 것이 피부를 위해서는 좋지 않지만 탄산가스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샴페인의 맛이 덜해지기 때문. 섬세하면서도 풍성한 맛, 단 한 모금으로도 눈을 반짝이게 하는, 단 한 번뿐인 웨딩을 위한 특별한 샴페인을 추천한다.

(왼쪽부터) 아름다운 핑크 컬러의 **모엣&상동 로제 알비니엘**, 파노 누아 생황을 강조한 샴페인으로 애호적인 핑크빛이 아름답다. 8만원대, 2백 년간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최고급 핑크 샴페인인 **페리에 주에 발레르코 로제**, 모란과 장미 향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신뜻하고 상쾌한 질감의 샴페인, 아네모네 꽃 패턴의 패키지도 아름답다. 66만4천원, 모엣&상동의 기본 750ml보다 2배 큰 1500ml 사이즈의 **모엣&상동 솔리브 메그넌**, 화려한 비주얼로 파티의 흥겨움을 더해줄 샴페인이다. 16만원대, 샴페인의 왕이라 불리는 **돔 페리뇽 빈티지 2005**, 강렬한 과일 향으로 시중해 포괄적이고 고수의 향까지 느낄 수 있는 진한 보디감이 탁월하다. 30만원대, 샴페인의 크라피 마을에서 완성되는, 여자를 위한 화이트 와인인 **범탈레도 블랑**, 사보나에 100%를 사용해 만든 진구한 와인으로 특별한 와이 니 필요한 웨딩에 제격이다. 18만원대, 에디터 **베이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Beauty BRIDAL SPECIAL CARE

D-30일, 가장 중요한 디데이를 앞두고 지금부터 예비 신부가 꾸준하게 해야 할 관리는 바로 웨딩 뷰티 케어다. 퀄리티 높은 제품과 에스테티션의 섬세하고 뛰어난 테크닉으로 최상의 럭셔리 케어를 경험하게 해줄 뷰티 브랜드 네 곳의 웨딩 스파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예민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순한 아로마틱 케어를 선보이는 **달팡 시그니처 스파**에서는 환한 피부를 위한 브라이트닝 페이스 트리트먼트(90분), 보디 트리트먼트(90분)로 이루어진 웨딩 풀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페이스 케어는 클렌징, 각질 케어, 인티에이징 케어 등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뽕친 근육을 풀어 대혈통 라인을 매끈하게 정돈해주는 보디 케어는 달팡 시그니처 스파의 대표 프로그램이다(1백50분 20만원대, 문의 02-3442-1144).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스파로 손꼽히는 **발몽 브이스파**에서는 발몽의 제품 중 드라마틱한 효과를 지니는 콜라겐 마스크를 적용한 에너지 리추얼 컴플리트 트리트먼트 프로그램(1백 분을 선보인다. 스키 최후 기립 근에서 추출한 100% 퓨어 콜라겐을 함유한 리제-레이팅 마스크는 자극 없이 피부에 즉각적인 탄력을 부여해 예측 하루 전까지 발아도 좋은 프로그램, 페이스 트리트먼트와 함께 테일러드, 종아리 관리까지 포함된다(32만원, 문의 02-6282-2500). 프랑스 전통 자안주의 스파 **와이스파**는 60년 전통의 천연 아로마 브랜드 용카 제품만 사용하는 스파 샵. 고품도의 아로마 케어라 1회 관리으로도 눈에 띄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웨딩 케어로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림프 순환을 원활히 해 V라인 얼굴을 만들어주는 페이스 발란스 프로그램(60분, 8만9천원, 등, 복부, 세골 라인 등의 근육과 셀룰라이트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드레스 라인 트리트먼트(80분, 12만원대)가 가장 인기다(문의 02-3448-4590). **블라리스 X 콘라드 스파**는 개별 샤워 공간이 있는 8개의 트리트먼트 룸에서 럭셔리한 호텔 스파를 경험할 수 있는 곳. 회사하고 윙크 나눈 피부로 빠르게 회복시키는 화이트닝 페이스 트리트먼트 워드 샌드 스프리 프로그램(60분 16만5천원은 눈에 띄는 효과를 선사해 피부 잡티가 고민인 신부에게 적극 추천한다(문의 02-3448-4590). 에디터 **리유진**



Living 전환하는 LED 조명, 맨시와 실용성을 겸비한 매력을 꽃피우다

온갖 기능적인 장점을 차치하고서라도 디자인만으로 시선을 끄는 맨시 빼어난 LED 조명 신제품들이 나와 눈길을 끈다. 프리미엄 LED 라이팅 브랜드 루씨엘(Luciel)은 실내 공간을 아우르는 47가지 상품 라인을 내놓고 국내 LED 조명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우선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의 '오차드'와 '노베니'는 방, 거실 등의 주거 공간을 위한 상품군으로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 5가지 패키지로 조합할 수 있다. 패키지 가격은 1백만원대부터 시작한다. 손으로 한 덩어리만 만들었다는 핸드메이드 제품 '바르셀로나'는 스틱용 팬던트 조명으로 정겨운 엔틱 감성이 묻어난다. 루씨엘은 53년 역사를 지닌 남양주에서 아쉽게 내놓은 조명 브랜드로 전국적으로 50개의 가정용 LED 전문 매장을 연다는 계획이다(www.namyung.co.kr). 최근 주목받고 있는 리프사프라이 컬렉션 속 BOE는 하이엔드 기구 글라스 이탈리아(Glas Italia)와 프리즈 한센 등 다채로운 브랜드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 중 세계적인 디자이너 피에리 리스나가 디자인한 하이 호(Heigh Ho)는 제품이 좋다. 잠금장치까지 달려 있는 투명한 유리 케이스의 제품으로, LED 조명이 뒷면에 내장되어 수납장도 되고 조명도 되는 일석이조의 쓰임새를 갖춘 것(www.bo-e.co.kr). 이탈리아의 가장 일러스트로 멘디니표 디자인으로 이미 꽤나 유명세를 탄 브랜드 라운의 LED 스탠드 조명 '이탈레토'의 신제품도 나왔다. 2015 밀라노 엑스포를 기념해 하양, 초록, 빨강의 이탈리아 국기 색상을 모티브로 삼은 제품이다. 이 모델은 서울 다치동 매장(www.ramun.com)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에디터 **고성연**

라운 이탈레토



PRADA

02-3443-2023 PRADA.COM



1 레이스와 비즈 장식의 아우라진 로맨틱한 디자인의 폭스 퍼머너 6백50만원
제이 멘델, 2 꽃에 사뿐히 내려앉은 듯 아름다운 나비 모티브의 다이아몬드 이어링 3천만원대 **반들리프 아펠**, 3 크리스탈 장식과 하늘하늘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2천만원대 **제이 멘델 by 아블라에 쿠**, 4 반짝이는 별 모양의 브로치 가격 미정 **샤넬**, 5 여성스럽고 우아한 다이아몬드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 워치 3백25만원 **리도**, 6 로맨틱한 라벤더 컬러의 캐주얼이 선글라스 40만원대 **프리다 by 룩스타가 코리아**, 7 화려한 주얼리 장식의 하트 케이스 클라치, 19X9cm, 2백48만원 **세르지오 로시**, 8 라구나 무와 부드러운 캐시미어 소재로 만든 럭셔리한 주얼리 박스 3백23만원 **로르피아나**, 9 두 사람의 만남을 의미하듯 두 송이의 크리스탈 장미가 꽃을 피운 화려한 장식 16만2천원 **스와 로브스키**, 10 부드러운 송아지가족 소재의 핑크 컬러 폼페트 토트백, 27X21cm, 6백90만원대 **델보**, 11 각테일 드레스에 빠질 수 없는 화려한 스와로브스키 장식의 스웨이드 샌들 1백98만원 **지마후**, 12 하트 세이프의 루비와 핑스 컷 다이아몬드를 반짝이게며 사탕처럼 눈부신 광채를 자랑하는 네크리스 가격 미정 **그라프**.

그라프 02-2256-6810 **델보** 02-3449-5916 **리도** 02-2639-1964 **로르피아나** 02-546-9672 **룩스타가 코리아** 02-501-4436 **반들리프 아펠** 02-3440-5660 **샤넬** 02-543-8700 **세르지오 로시** 02-6905-3740 **스와로브스키** 1661-9060 **아블라에 쿠** 02-517-3889 **제이 멘델** 02-3479-6172 **지마후** 02-3438-6107

스타일리스트 윤원정
 어시스턴트 이상영, 박혜미, 예민아, 권유진

for her
Selection

하늘하늘한 실루엣의 웨딩드레스, 아름다운 순간을 빛내줄 반짝이는 주얼리, 평소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화려한 각테일 슈즈와 클라치까지. 지금 가장 멋진 웨딩을 위한 패션 아이템. *photographed by kim do hyun*



TASAKI
 BRIDAL

Avenuel World Tower 02.3213.2264 Hyundai Apgujeong 02.3438.6023 Hyundai Daegu 053.245.2247 Shinsegae Main 02.310.1854
 Shinsegae Gangnam 02.3479.1232 Shinsegae Gyeonggi 031.695.1927 Shinsegae Centum City 051.745.1479 www.tasaki.co.kr



1 클래식한 디자인이 멋스러운 인경 30만 원대 **레이벤 by 루스타카 코리아**. 2 올 소재의 턱시도 슈트 3백70만원대, 화이트 셔츠 가격 미정, 블랙 보타이 25만 원대 모두 **롤 브라운**. 3 블랙 다이아몬드를 인입 알루미늄 2000 케이 스 안에 불과 4.3g의 스텔라이트 무브먼트를 장착해 견고하면서도 아주 가벼운 RMO35 리퍼럴 나팔 워치,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았다. 가격 미정 **리처드 밀**. 4 기질이 느껴지는 울스토틀 2015 작가 에디션 만년필 1백21만원 **몽블랑**. 5 가볍고 튼튼한 소재, 4-way 시공판스 바커, 세련되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실용성과 미적 감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7R 트렁크. 예전함으로도 인가다. 37X55cm, 99만 원 **하트만**. 6 그레이 체크 패턴이 돋보이는 브리프케이스 **클라치**. 37X26cm, 1백50만 원대 **프리다**. 7 중첩된 매끈한 라인의 레이스업 수츠 1백30만원대 **다음 올**. 8 강렬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질고 풍부한 샌들우드와 마스크 향이 매력적인 허질라야 향수 75ml 34만8천원 **크리드**. 9 필라델피아의 심을 한 바글이 포인팅인 악가죽 벨트 2백만원 **콜롬보 비아 엘라스 피가**. 10 턱시도에 포인트가 되어줄 그레이 보타이 21만원 **랑방 올**. 11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해줄 프리미엄 엔트리 DSLR 카메라 EOS 750D 99만8천원 **캐논**. 12 플라워 프린트 실크 타이 35만원 **브리오니**. 13 사계 부품에서 모티브를 얻은 카본 패턴의 카프스 링크 4백만원대 **블랑랑**.

다음 올 02-513-3233 **랑방 올** 02-6905-3496
 리처드 밀 02-2230-1288 **루이 비통** 02-3432-1854
 루스타카 코리아 02-501-4436 **몽블랑** 02-2118-6053
 브리오니 02-6905-3760 **블랑랑** 02-2230-3888
 캐논 1588-8133 **콜롬보 비아 엘라스 피가** 070-7130-9200
 크리드 02-3449-4545 **롤 브라운** 02-3438-6255
 프리다 02-3442-1830 **하트만** 02-514-9006

for him Selection

클래식하면서도 트렌디함을 갖춘, 완벽한 디테일을 위한 웨딩 룩.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포르쉐는 Mobil 1을 권장합니다.

www.porsche.co.kr

스포츠카와 SUV의 융합
 나의 심장이 뜨거워진다- 마칸

The Porsche Macan.
Life, intensified.



-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Macan 75,600,000원 배기량 1,984cc, 7단 자동 PDK, 도심연비 8.0km/L, 고속도로연비 10.5km/L, 복합연비 8.9km/L, 복합 CO2 배출량 및 등급 199g/km 5등급, 공차중량 1,850kg.
Macan S Diesel 82,400,000원 배기량 2,967cc, 7단 자동 PDK, 도심연비 10.5km/L, 고속도로연비 13.4km/L, 복합연비 11.6km/L, 복합 CO2 배출량 및 등급 172g/km 3등급, 공차중량 2,030kg.
Macan S 84,800,000원 배기량 2,997cc, 7단 자동 PDK, 도심연비 6.3km/L, 고속도로연비 8.9km/L, 복합연비 7.3km/L, 복합 CO2 배출량 및 등급 248g/km 5등급, 공차중량 1,940kg.
Macan Turbo 107,400,000원 배기량 3,604cc, 7단 자동 PDK, 도심연비 6.3km/L, 고속도로연비 8.9km/L, 복합연비 7.2km/L, 복합 CO2 배출량 및 등급 250g/km 5등급, 공차중량 2,000kg.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운전방법·차량적재·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포르쉐 차량 시승 및 문의는 공식 포르쉐 센터로 연락 주십시오.
 포르쉐 센터 대치 02.2051.0911 / 포르쉐 센터 서초 02.440.0911 / 포르쉐 센터 분당 판교 031.729.0911 / 포르쉐 센터 분당 서현 031.813.0911 / 포르쉐 센터 일산 031.813.0911 / 포르쉐 센터 인천 032.450.3000
 포르쉐 센터 대전 042.862.0911 / 포르쉐 센터 대구 053.768.0911 / 포르쉐 센터 광주 062.526.0911 / 포르쉐 센터 부산 051.749.0911

Frida's Soul in Casa Azul



갈매기 날개처럼 생긴 새까만 눈썹, 깊고도 우울한 눈빛. 그녀, 프리다 칼로가 요즘 다시 대세란다. 뉴욕에서, 런던에서, 급기야 서울에까지 그녀가 왔다. 평생 서른두 번의 수술이 헤집고 간 상처투성이 몸, 남편의 끊임 없는 외도로 만신창이가 된 일생. 그녀가 대체 뭐기에, 파카소부터 마돈나까지 그녀를 칭송한 것일까. 누구는 말한다. '나쁜 남자' 디에고 리베라의 희생양이라고. 또 누구는 말한다. 남편 유명세를 이용한 '신데렐라 스토리'일 뿐이라고. 과연 프리다 칼로의 진짜 모습은 어땠을까. 그녀가 태어나 평생을 보내고 생을 마감한 멕시코 코요아칸의 파란 집에서 칼로란 성을 또렷이 지닌 혈육이 전하는 생생한 그녀 이야기를 들어보자.



프리다 칼로(1907~1954)를 만나러 가는 길은 멀고도 멀었다. 비행기를 두 번 바꿔 타고 지구 반 바퀴를 돌아 도착한 멕시코시티, 거기서도 차를 타고 30분간 교외로 나가야 그녀가 평생 살던 동네 코요아칸이 나온다. 코요아칸을 향해 달리는 자동차 안, 운전기사 살바도르의 프리다 예찬이 끊이지 않는다. "인생도, 그림도, 한참 앞사건 여성이었어요. 늘 담배를 뽀뽀 피우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 시대에! 멕시코 남자들이 얼마나 마초에다 거부장적인데 그 앞에서 보란 듯이 담배 피운 거잖소." 아, 맞다. 그제야 사진 속 그녀가 늘 손가락에서 놓지 않았던 불 붙은 담배가 떠오른다. 연인이었던 사진가 니콜라스 메레이와 작업실에서 찍은 사진에서도, 뉴욕의 어느 고층 빌딩 옥상에서 찍은 사진에서도, 그녀는 늘 담배를 놓지 않았다. 한때 페미니스트들이 그러했듯, 당시의 그녀에게 담배는 마초적 사회를 향한 저항의 표시였으리라. 꺾연의 순간만은 온갖 장애와 병마가 스친 육신의 시름을 잠시나마 내려 놓았으리라. 책에선 볼 수 없었던 프리다의 담배 이야기가 무슨 대단한 발견이라도 되는 듯 한참 동안 그녀에게 감정을 이입한다. 어느덧 프리다가 태어나고, 살고, 죽은 집, 그리고 죽은 뒤엔 박물관(Museo Frida Kahlo)으로 바뀌어 프리다 팬의 성지가 된 가사 아줄(Casa Azul, 파란 집)에 도착했다. 멕시코의 쪽빛 하늘색을 톡 톡 풀어놓은 듯(은 남편 디에고 리베라의 권유로 이곳에 망명 와 한때 프리다의 연인이었던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를 위해 담을 높이 쌓으면서 파란색을 칠했다지만) 눈부시게 시린 블루가 외벽을 휘감았다. 안으로 한 발짝 내딛자 프리다의 그림에 늘 등장하는 선인장 사이로 그녀가 걸어 나왔다. 150cm 남짓한 작고한 체구, 새까만 눈썹, 부리부리한 눈매. 게다가 프리다처럼 절뚝절뚝 한쪽 다리를 친다. 프리다와 너무도 똑 닮은 그녀. 프리다의 여동생 크리스티나 손녀, 크리스티나 칼로다. 크리스티나 칼로가 누군가. 형부 디에고와 불륜을 저질러 언니 프리다가 이혼하게 한 장본인 아닌가. 그녀의 손녀다. 이름마저 같은. 그녀는 칼로라는 성을 지닌 유일한 칼로 가(家) 사람이다. 프리다는 자매만 됐는데, 동생 크리스티나만이 결혼해 아이를 뒀기 때문이다. 칼로 집안의 예술적 재능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그녀는 사진가이자, 프리다의 사진 전시를 담당하는 큐레이터다. 그녀와 프리다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이어갔다.

질문을 노래한 자화상

"제가 몇 년 전부터 다리를 절어요. 물랐는데 제 주치의가 유전적 요인 때문인 것 같대네요. 이런 증상이 독일계에서 많이 나타난다는데, 아시잖아요. 저희 중조할아버지(프리다의 아버지 기예르모 칼로)가 독일계인 거요. 프리다도 그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가족력이라니, 이 또한 어디서도 듣지 못한 얘기다. 칼로의 아픈 몸, 그녀의 성장 배경 얘기로 대화가 흘러갔다. 흔히들 프리다 칼로 앞에 '절망이란 단어를 붙인다. 이 절망의 큰 부분은 신체의 고통이다. 독일에서 이민 온 아버지와 메스티소(스페인과 인디오 혼혈)인 멕시코 어머니 사이에

서 태어난 프리다는 여섯 살에 소아마비를 앓는다. 왼쪽 다리보다 한참이나 짧고 가는 오른쪽 다리를 감추려 늘 바지를 입었다. 열여덟 살, 에스쿠엘라 국립예비학교에 다니던 시절 하룻길, 첫사랑과 함께 탄 버스는 애꿎게도 전차와 정면 충돌한다. 척추는 으스러지고 골반은 세 조각 났다. 버스 손잡이 쇠봉이 자궁을 관통했다. 상처투성이 자궁은 세 번의 임신술을 세 번의 유산으로 막 내리게 했다. 평생 서른두 번의 수술이 그녀의 작은 몸을 헤집었다. 그림은 통증을 달여주는 진통제이자, 새 삶을 찾기 위한 돌파구였다. 처음 그림을 만난 건 전차 사고 직후 꽤 오랫동안 침대 생활을 해야 했을 때다. 딸의 고통을 그저 바라만 보면 아버지는 딸을 위해 침대에 특수 고안한 이젤을 설치해줬다. 침대 캐노피엔 거울을 붙여 자기 얼굴을 보게 했다. 소일거리로 화구를 안겨준 아버지는 딸이 훗날 세계인이 사랑하는 화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파란 집엔 프리다가 누워 그린 그림, 뒷간에 거울이 달린 침대가 그대로 있다. 소녀에서 여인으로 성장하는 동안, 줄곧 병마에 시달리며 결국 말년에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그녀에게 거울은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였으리라. 거울 속에 비친 괴로운 외모는 고스란히 그녀의 이젤에 담겼다. 그토록 유명한 프리다의 자화상이다. 맞닿은 시커먼 눈썹과 때론 강렬하게 때론 우울하게 쳐다보는 눈빛을 멕시코의 민속적 부족물과 함께 문화적으로 그렸다. 평생 회화 1백43점을 남겼는데 그중 55점이 자화상이다. 안웃 자기애가 지나친 것처럼 보이나, 이 자기애는 여타 화가들의 그것과는 달리 몸의 장애에서 온 것이라는 점에서 프리다의 자화상은 처절하다. 프리다는 말했다. "나는 너무나 자주 혼자 이기에, 또 내가 가장 잘 아는 주제에게 나를 그린다"라고. 그녀의 슬픔을 고백한 일기장 같은 자화상 앞에 서서 이 문구를 되뇌는다. 온몸이 침대에 묶인 채 고통에 휩싸여 거울을 보며 붓을 잡던 그녀가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애잔해진다.

바람둥이 남편 디에고는 원수? 백마 탄 왕자?

"우리 할머니가 몹쓸 사람이었대요? 역울해요. 프리다는 어땠는데요. 서로 자유를 인정했던 거예요." 신체의 고통과 함께 프리다의 절망을 말할 때 늘 등장하는 게 나쁜 남편 디에고다. 오죽하면 프리다가 "인생에 두 번 대형 사고가 있었는데 하나가 전차 사고, 다른 하나가 디에고였다"라고 말할 정도였을까. 스물한 살 연상의 남편 디에고는 예술적 동지이자 무한한 영감의 원천이었으나 주체하지 못하는 바람기로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렸다. "프리다가 어디가 어때서 그 통보 바람둥이랑 산 거야"라고 씩씩대는 프리다 칼로 팬, 여럿 봤다. 물론 디에고는 나쁘다. 멕시코를 대표하는 벽화가이자 혁명가이며 시대를 대변하는 지성이었지만 여성 편력에 대해서라면 따라올 자가 없었다. 식인귀(食人鬼)란 별명까지 붙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의 외도를 눈감아주던 프리다(이미 그의 바람기를 너무나 잘 알고 결혼했기에)도 사랑하는 여동생 크리스티나와 디에고의 불륜 앞에선 잠지 못했다. 사랑하는

남편과의 이혼을 감행할 정도로 절망스러웠을 것이다(물론 1년 뒤 재결합했지만). 둘의 관계를 알고서 느낀 분노와 절망은 칼에 찔려 선혈이 낭자한 자화상 '뿔 뿔렸을 뿐'(1935년 작), 심장에서 시뻘건 피가 흐르는 자화상 '두 명의 아픔'(1939년 작) 같은 명작을 낳았다. 이 사진을 두고, 크리스티나는 외할머니를 두둔했다. "자유연애는 디에고만 한 게 아니에요. 프리다와 연인이었던 트로츠키, 이사무 노구치(일본계 미국 조각가), 니콜라스 메레이(미국 사진가)의 편지를 받아준 게 저희 외할머니였어요. 디에고가 흑여 알까, 프리다는 러브 레터를 우리 외할머니한테 보내게 했어요. 그들의 사랑의 메신저가 우리 외할머니였어요. 그 관계들을 알았기에, 외할머니가 양심의 가책을 덜 느꼈을지도 모르죠." 프리다는 비련의 여주인공만은 아니었다. 당대 가장 유명한 멕시코의 문화·정치계 셀러브리티이자 국제적 인사였던 디에고를 차지함으로써 프리다는 미담 리베라의 지위를 싹튼 활용했다. 디에고를 따라 프랑스, 미국을 다니며 견문을 넓히고 그곳의 예술가와 교류했다. 앙드레 브르통에게 '폭탄을 둘러싼 리본'이라는 찬사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디에고를 통한 그들과의 교류에서 비롯했다. 프리다를 남편 디에고의 명성을 이용해 성공한 '신데렐라'로 폄하하는 일부 시선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사그라지지 않는 '프리다 마니아'

"칼로는 여러 가지 스토리를 지닌 인물이에요. 신체적 고통, 남편의 불륜, 유산, 게다가 동성애까지. 그런 복잡한 인생을 산 여인이지만 결국 사랑받고 성공했어요. 고통받는 이들, 특히 여성들이 공감할 요소가 많다는 거죠. '프리다 마니아'가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크리스티나가 파란 집 정원을 오가는, 프리다 칼로 복장의 관람객을 가리키며 말했다. 화가의 그림을 보러 가면서 그 화가의 복장을 코스프레하다니, 다른 화가들에게선 볼 수 없는 일이다. 고풍 미술관에 고풍 옷을 입고 간다? 파카소 미술관에 파카소 옷을 입고 간다? 상상도 못할 일. 이리니 프리다가 특별한 수밖에. 파란 집에서 만난 브라질 관람객은 프리다가 즐겨 입던 멕시코 민속 의상인 테우아나 차림을 하고 있었다. 출신 도우미라는 그녀는 1년 치 봉급을 모아 파란 집에 왔단다. 그녀에게 여기까지 온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답했다. "프리다는 '여 전사'죠. 제 롤모델이에요." 갑자기 정원에 까만 선글라스 쓴 경호원이 물러들었다. 예니 하우키오 핀란드 대통령 부인이 남편을 따라 멕시코에 왔다가 꼭 프리다를 보고 가겠다고 들렀단다. '오늘의 프리다'를 꾸꾸는 이들이 아직도 많다. 하키야 마돈나도, 레이디 가가도 프리다를 오마주하지 않았던가. 마돈나는 그 비싼 프리다의 자화상을 소장하기까지 했다. 크리스티나의 말대로, 여러 빛깔 이름을 지냈기에 현대 여성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녀의 그림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다. 프리다의 매력은 그림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프리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아이콘이다. 대개의 프리다 전시에는 그림보다 많은 수의 사진

이 등장한다. 프리다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프리다를 찍은 사진이다. 프리다는 다른 예술가, 특히 사진가들의 뮤즈였다. 니콜라스 메레이, 롤라 알바레스 브라보, 플로렌스 아르퀸 등 유명 사진가가 그녀를 담았다. 심지어 자화상 속 그녀보다 사진 속 그녀가 더 예쁘다. 프리다가 매력적인 피사체였던 데엔 여러 이유가 있다. 아버지 기예르모가 유명 사진가여서 어렸을 때부터 카메라 앞에 섰다. 많이 찍힐수록 어떻게 포즈를 취해야 예쁘게 나오는지 아는 법. "사진 속 그녀의 손을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사진 찍을 때 제일 어색해지는 부분이 손 처리예요. 그런데 프리다는 어디에 어떻게 손을 댄지 할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렇다. 사진 속 그녀의 손은 매우 자연스럽다. 다소곳이 모으고 있거나, 담배를 단단히 쥐고 있다. 독특한 민속 패션도 예술가들에게 큰 영감을 줬다. 프리다는 남편 디에고와 함께 멕시코 정체상을 평생 강조했다. 당시 여인들은 프랑수아즈 의상에 빠져 있었지만 프리다는 멕시코 인디의 의상에 눈을 돌렸다. 식물이나 리본을 넣어 장식한 머리도 인디오 전통의 소산이다. 같은 시대 멕시코 여인들이 '모던 걸'을 향할 때, 그녀는 멕시코 인디오 여인을 향한 것이다. 이것이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이었다. 그녀를 본 외국 예술가들은 아국적 분위기에 매료됐다. 당대 얘기만이 아니다. 그녀의 패션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 지방시, 폼 데 가르송, 장 폴 고티에 같은 패션 브랜드에서 그녀를 오마주한 의상을 발표했다. 프리다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특히 올해 그 인기가 더하다. 미국 뉴욕 브롱크스의 뉴욕 보타니컬 가든에선 <프리다 칼로: 아트, 가든, 라이프>전이 한창이다. 파란 집의 정원을 재현한 독특한 기획이다. 생전 프리다 칼로가 정원에서 기른 멕시코의 동식물을 식물원으로 옮겨두고 부속 갤러리에선 그녀의 작품을 선보인다. 미술사학자 아드리아나 자발라가 기획하고, 토니상 수장자인 유명 무대 디자이너 스킷 패스카가 디자인을 맡아 인기몰이 중이다. 뉴욕 스토크모턴 갤러리에선 유명 사진가들이 프리다 칼로를 모델로 찍은 사진을 전시한 <미러 미러(Mirror Mirror)>전이, 프리다가 디에고의 벽화 일 때문에 잠시 머무른 미국 디트로이트의 디트로이트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에서는 <디에고 리베라-프리다 칼로 부부전>이 열린다. 유명 사진가 지젤 프로인트가 프리다 부부의 말년을 밀착해 찍은 사진집도 최근 발간됐다. 일본 사진가 이사우치 미야코는 프리다 칼로의 옷, 척추 교정용 코르셋 등 패션 상품을 찍어 사진집을 냈다. 이 작품은 영국 런던의 마이클 호프 갤러리에서 전시 중이다. 매미침 서울에도 프리다 그림이 와 있다. 서울 율림박물관 내 소미미술관에서 9월 4일까지 열리는 <프리다 칼로-절망에서 피어난 천재 화가>전에선 '원숭이와 함께 있는 자화상'(1943년 작), '빨은 머리의 자화상'(1941년 작) 등 그녀의 대표작을 볼 수 있다. 프리다의 그림은 멕시코 정부가 국가 재산으로 특별히 관리해 해외 반출이 어렵다. 그만큼 국내 관람객으로서 전시 만나기 어려운 귀한 기회이니, 프리다 팬이라면 무더위 속 미술관 피서는 어떨까?

18 글 김미리(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Lace Up Shoes
 (왼쪽부터) 개성 있는 알코 라인과 스티치 장식이 돋보이는 스트랩 슈즈 99만9천원
산토니 by 헤리티지, 가죽 텍스처가 독특한 캠프 토 플렉스 슈즈 99만원대
에르메네제오 제나, 두 줄의 스티치 장식으로 특별함을 더한 스트레이트 톱 슈즈 2백28만원 **브리오니**.



Classic Loafers
 (위부터) 깊이감이 느껴지는 버킨디 컬러가 멋스러운 소가죽 바라 로퍼 99만원 **페라기오**, 스티치 라인을 더한 알선과 중앙의 태슬 리본 장식이 포인트인 블랙 로퍼 2백20만원 **틀 포드**, 군더더기 없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숭이자기죽 얼 로퍼 1백만원대 **루이 비통**.

make a Man

좋은 신발을 신으면 좋은 곳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결혼이라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잘 만든 구두 한 켤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이제 남자들이
 멋쟁이로 거듭나고
 스타일링을 위한
 아이템을 찾는다



Monk Strap Shoes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편평 대테일의 브라운 컬러 더블 몽크 스트랩 슈즈 2백45만8천원
브리오니, 블루빛이 감도는 스트레이트 톱 더블 몽크 스트랩 슈즈 99만원 **엔조 앙게로**
by 란스미어, 알코의 편평 대테일이 돋보이는 몽크 스트랩 슈즈 1백20만원대 **구찌**.



Oxford Shoes
 (오른쪽 위부터 아래로) 블랙 컬러의 워밍 브로그 옥스퍼드 슈즈 1백14만원대 **에르메네제오 제나**, 자연스럽게 물들인 듯한 그라데이션 컬러가 유니크한 워밍 옥스퍼드 슈즈 1백23만원 **올체안지**가, 분체선이 없는 매끈한 디자인과 뽀족한 알코 라인이 세련미를 더하는 워밍 옥스퍼드 슈즈 2백93만원 **벨루티**, 에디터 베이진, 권유진
 브리오니 02-6905-3760 란스미어 02-542-4177
 구찌 1577-1921 페라기오 02-2140-9642 틀 포드 02-6905-3534 루이 비통 02-3432-1854 에르메네제오 제나 02-2240-6524 올체안지 02-3444-0077
 벨루티 02-547-1895 헤리티지 02-3489-7812



RADO DIAMASTER AUTOMATIC DIAMONDS
 PLASMA HIGH-TECH CERAMIC. METALLIC LOOK. MODERN ALCHEMY.

RADO
 SWITZER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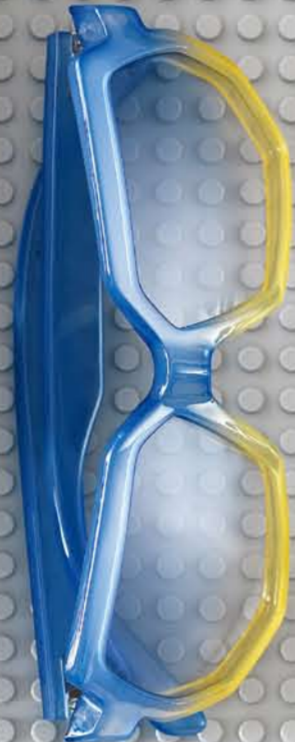
TIME IS THE ESSENCE WE ARE MADE OF

THE SWATCHGROUP KOREA

8월 말 현대백화점 판교점 MONO SHOP 오픈예정
 Hour Passion 롯데월드몰 02 3213 4168 Hour Passion 코엑스몰 02 551 1982 AK 수원 부티크 031 240 1185 신세계 영등포 02 2639 1964
 신세계 센텀시티 051 745 1422 신세계 경기 031 695 1661 신세계 의정부 031 8082 0350 신세계 충청 041 640 5052 현대 목동 02 2163 1191
 현대 킨텍스 031 822 2940 현대 울산 052 228 0273 현대 부산 051 667 0166 갤러리아 타임월드 042 720 6243 스와치그룹CS센터 02 3149 9555

candy Shades

거울처럼 반짝이는 머리 렌즈부터, 위아래 다른 컬러가 매력적인 투톤 선글라스, 화려한 프레임이 돋보이는 제품까지. 지금 가장 핫한 선글라스의 공통점은 마치 장난감처럼 키치스러운 디자인을 가미했다는 점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깔끔한 화이트 프레임과 톱톡 튀는 머리 렌즈가 멋스러운 선글라스, 오버사이즈 렌즈로 착용 시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준다. 19만5천원 스포티스트림스

블루와 옐로 컬러의 조화가 시원해 보이는 투톤 선글라스, 유니크한 육각형 렌즈가 인상적이다. 27만원 마크 바이 마크 제이앤스 by 사필로

강렬한 컬러의 머리 렌즈가 시선을 사로잡는 선글라스, 패들리 화려한 프레임이 어떠한 스타일에도 포인트가 되어줄 것. 28만원 쉐들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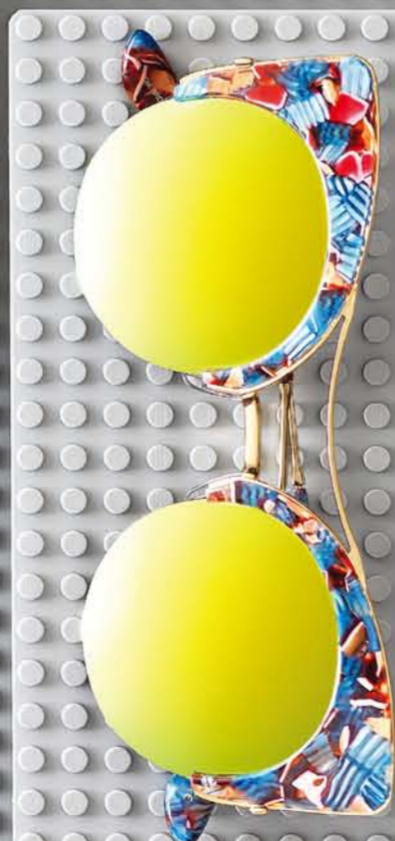
구조적인 렌즈 디자인과 레오파드 패턴 프레임이 눈길을 끄는 선글라스, 클래식한 선글라스보다는 레드 로즈이자인 트렌디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여성에게 추천한다. 40만원대 발렌티노 by 다리 F&S

숨사탕같이 시원스러운 핑크 컬러와 가볍고 투명한 아세테이트 소재 프레임이 특징인 오가타 선글라스, 여성적 강세인 캐주얼 렌즈가 세련된 복을 완성해준다. 78만원대 팬디 by 사필로

출사도까지 엄청난 인기!에 원유어 품질 시대를 불러온 쓰리얼 선글라스, 슬림과 블루 컬러의 투톤 렌즈에서 트렌디함이 느껴진다. 70만원대 디올

위트 넘치는 빈무테 디자인의 레이저 캐주얼 선글라스, 화려한 크리스탈 장식이 제품의 매력을 배가시킨다. 50만원대 마우미우 by 룩스타가 코리아, 에디터 배미진, 김지혜

스포티스트림스 02-508-1397 룩스타가 코리아 02-501-4436 디올 02-513-3232 사필로 02-514-9006 다리 F&S 02-513-2380 쉐들몬스터 1600-2126



스튜디오 유원정
 아스텔 아방, 박미



BVLGARI

BRIDAL
Wear it with Love



romantic Case

어떠한 충격에도 끄떡없을 것. 캐리어가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수하물 레일에서 돋보이는 디자인을 갖출 것.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할 것. 신혼부부의 달콤한 허니문 동반자가 되어줄 트래블 캐리어의 조건.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모노그램 캔버스 패턴과 클래식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여행용 가방, 골든 브라스 메탈 장식이 고급스러운 동시에 견고하다. 루이 비통 애호가라면 소장용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40X32cm, 5백만원대 루이 비통, 리모와의 대표적인 캐리어, 토미즈, 튼튼한 알루미늄 소재로 어떠한 외부 충격에도 내용물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보호해준다. 조경량 비루까지 장착해 아무리 무거운 가방도 부드럽게 이동시켜준다. 68X44.5cm, 1백19만원 리모와, 블루 컬러가 시원하게 보이는 여행용 캐리어, 360도 회전 가능한 내장형 4륜 시스템과 우주 항공기에 쓰이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핸들, 낙폭한 수납공간까지, 캐리어의 조건을 모두 갖춘 테고라 라이트 라지 트립 케이스, 73.5X51cm, 1백만원대 루이, 가죽 장식 프레임이 고급스러운 화이트 캐리어. 폴리카보네이트 케이스를 사용해 파손의 위험을 줄였고, 양중맞은 사이즈가 기본으로 제작이다. 37X55cm, 69만원 하트만, 생로랑에서 만든 첫 트래블 라인인 트랄 모노그램 컬러선 트롤리, 생로랑의 카산드라 로고 패턴을 프린트해 멋스러움을 더했다. 37X53cm, 4백82만원 생로랑, 컬러 스티커를 활용해 나만의 캐리어로 변형시킬 수 있는 트렁크, 모든 재질이 도트 무늬로 이루어져 있어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37X53cm, 29만9천원 닷 트립스 by 라움 보아지, 비비드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캐리어, 일파잇 Z 웨이브 패턴이 특징이며 더블 휠을 탑재해 스타일과 기능까지 모두 잡았다. 35X55cm, 16만9천원 아메리칸 투어리스트, 에디터 김지혜

루이 비통 02-3432-1854 리모와 02-546-3920 하트만 02-3448-5914 루이 02-546-8864 생로랑 02-3438-7628 라움 보아지 02-540-4723 아메리칸 투어리스트 02-551-0667



사진: 김지혜



두 개의 골프장을 오롯이 담아내다

바람이 찾아 드는 언덕의 곡선을 그대로 이어 올려 앞으로는 용평G.C., 뒤로는 버치힐G.C.의 조망이 가능한 곳 대관령의 깨끗한 바람과 자작나무가 전하는 맑디 맑은 산소 테라피까지 용평리조트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곳 Birch Hill Terrace Residence입니다

극히 소수의 선택되신 분들을 모십니다.
Birch Hill Terrace Residence

회원모집문의 02.3270.1137

대관령과 서울의 기온차이
[**연간평균 5°C**]
※출처 : <http://www.kma.go.kr>



Birch Hill Terrace Residence 80Type 현장에서 실제 촬영 한 용평G.C. 전경입니다



파스텔 핑크 컬러의 토크메트
토티백 **델보**, 볼드한 디자인의
진주 네크리스 **다울**, 코르사주가
포인트인 하이힐 **다울**.

the love and Marriage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아름다운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턱시도를 갖춰 입은 신랑이 상기된 표정으로
마주 보고 서 있다. 끈이어 울려 퍼지는 서약의 순간, 축복이 넘치는 이 시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할
특별한 웨딩 주얼리와 워치 컬렉션이 여기에 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Wedding Rings for Propose

(왼쪽 페이지 왼쪽 윗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3.19캐럿의 다이아몬드를 감싸듯 세팅한 밴드 디자인의 프라티 링 가격 미정, 화이트 하이 세라핀과 핑크 골드 밴드가 조화를 이룬 코트르 화이트 솔라티어 링 0.27캐럿 기준 89만원대 **부세온**,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입체감 있게 세팅한 화이트 세팅 밴드 링 1천7백만원대, 어린 다이아몬드 링과도 잘 어울리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솔라스트 밴드 링 3백만원대,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정렬 가능해지는 우아한 밴드가 돋보이는 티파니 하모니 링 1.27캐럿 기준 3천5백만원대, 결혼반지의 시츄가 된 티파니 세팅 링, 6개의 프롱이 특징이다. 1.36캐럿 기준 4천3백만원대 모두 **타파니**, 마이크로 파베 세팅 기법으로 다이아몬드를 촘촘하게 세팅해 메인 스톤을 돋보이게 하는 까르페 데스테네 솔라티어 링 1.03캐럿 기준 4천2백만원대, 스크루 드라이버 부분에 볼록 솟은 1캐럿대 다이아몬드가 포인트인 러브 솔라티어 링 1.04캐럿 기준 3천5백만원대, 4개의 돌을 알테타 미운토가 다이아몬드를 이음매 없이 세팅한 듯한 느낌을 주는 솔라티어 1895 링 1.27캐럿 기준 4천3백만원대, 알자넷 화려한 광채를 자랑하는 까르페 데스테네 밴드 5백만원대 모두 **까르페**, 다이아몬드 주위를 핑크 골드 로제트 꽃을 연상케 하는 코플 플레티브 솔라티어 링 0.37캐럿 기준 3백만원대, 솔라티어 링과 함께 매치하면 우아함을 더해줄 코플 다이아몬드 카드 링 1백80만원대, 밴드에서 마치 장미가 뿜어내듯 메인 다이아몬드 1개와 작은 다이아몬드 2개를 세팅한 로제트 솔라티어 링 1캐럿 기준 2천만원대 모두 **무시메**, 7방 손잡이 안쪽 부분 가운데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심플한 기운 디자인이 우아한 피아피에 솔라티어 링 1캐럿 기준 3천만원대, 밴드의 절연을 옹기 다이아몬드로 세팅한 피아피에 가드 링 3백만원대, 여성스럽고 우아한 디자인의 솔라스트 오벌 링 1.19캐럿 기준 3천1백만원대 모두 **타파니**, 동백 꽃잎의 아름다운 곡선을 밴드 디자인에 반영한 까르페 솔라티어 링 0.5캐럿 기준 1천5백만원대 **사벨 확인 주얼리**, (하이힐 옆 윗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밴드에 핑크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더욱 강렬하게 표현한 시그처 스타일 세팅 링 가격 미정 **그리프**,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안고 있는 듯 다이아몬드를 감싼 밴드 디자인의 쿠튀르 솔라티어 링 0.7캐럿 기준 2천만원대, 플래티넘 밴드의 양쪽을 장식하게 정사각 플래티넘 비즈 세팅의 정교함이 돋보이는 에스텔 솔라티어 링 0.5캐럿 기준 1천만원대 모두 **반클리프 아펠**, 볼륨감 넘치는 하트 모양으로 다이아몬드를 가공한 프라티스 세팅 링, 꽃을 연상케 하는 로제트 컬렉션 다이아몬드 링 모두 가격 미정 **그리프**, 물방울 모양의 패어 세이프 솔라스트 링 1.7캐럿 기준 2천만원대 **타파니**, 원근과 꽃에서 영감을 받아 심플하면서도 볼륨감 있는 디자인의 코라나 솔라티어 링 1캐럿 기준 3천만원대 **볼가리**.

(오른쪽 페이지 왼쪽 윗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파리 반돌 광장의 팔각형 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핑크 골드 프라피에 링 3백만원대, 화이트 컬러 세라핀 밴드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더한 올트라미니 솔라티어 링 0.27캐럿 기준 4백만원대 모두 **사벨 확인 주얼리**, 소장 가치가 있는 에메랄드 컷 티파니 밴드 링 1.66캐럿 기준 6천2백만원대, 다이아몬드 두 줄을 비드 세팅해 메인 스톤을 더욱 크고 화려하게 부각하는 솔라스트 링 1.13캐럿 기준 4천3백만원대, 여성스럽고 우아한 디자인의 솔라스트 오벌 링 1.19캐럿 기준 3천1백만원대 모두 **타파니**, 동백 꽃잎의 아름다운 곡선을 밴드 디자인에 반영한 까르페 솔라티어 링 0.5캐럿 기준 1천5백만원대 **사벨 확인 주얼리**, (하이힐 옆 윗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밴드에 핑크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더욱 강렬하게 표현한 시그처 스타일 세팅 링 가격 미정 **그리프**,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안고 있는 듯 다이아몬드를 감싼 밴드 디자인의 쿠튀르 솔라티어 링 0.7캐럿 기준 2천만원대, 플래티넘 밴드의 양쪽을 장식하게 정사각 플래티넘 비즈 세팅의 정교함이 돋보이는 에스텔 솔라티어 링 0.5캐럿 기준 1천만원대 모두 **반클리프 아펠**, 볼륨감 넘치는 하트 모양으로 다이아몬드를 가공한 프라티스 세팅 링, 꽃을 연상케 하는 로제트 컬렉션 다이아몬드 링 모두 가격 미정 **그리프**, 물방울 모양의 패어 세이프 솔라스트 링 1.7캐럿 기준 2천만원대 **타파니**, 원근과 꽃에서 영감을 받아 심플하면서도 볼륨감 있는 디자인의 코라나 솔라티어 링 1캐럿 기준 3천만원대 **볼가리**.

* 다이아몬드 주얼리는 동일한 개당이라도 다이아몬드의 투명도와 등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모든 이미지와 텍스트는 본지의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며, 무단으로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Women's Elegant Watches

(하이힐 옆 시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에르메스 슬립 데르메스 TPM 로즈 골드 워치** 수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우아하고 심플한 타이포그래피 인텍스가 돋보이는 25mm의 스몰 다이얼 여성 워치. 작고 슬림한 로즈 골드 베젤에 총 0.29카트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더했으며, 퀴즈 무브먼트를 탑재해 가려내 또한 한결 가벼워졌다. 1천9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알함브라 파베 스몰 사이즈 워치** 사랑, 행복, 건강 등을 뜻하며 반클리프 아펠을 상징하는 모티브인 알함브라가 시계로 탄생했다. 눈부실 만큼 빼곡하게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다이얼은 자세히 살펴보면 네 가지 각기 다른 사이즈의 다이아몬드를 사용해 반클리프 아펠만의 독보적인 세공 기술을 엿볼 수 있다. 3천9백만원대. **샤넬 화이트 주얼리 까멜리아 브로 데 워치** 마드루아젤 샤넬이 가장 사랑했던 동백꽃을 형상화한 주얼리 워치. 18K 화이트 골드에 총 2.36카트에 달하는 1백 94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세팅한 디자인이 단연 돋보인다. 4천7백만원대. **브레게 레인드 네이틀 미니 워치** 브레게 여성 워치 컬렉션에 대표하는 레인드 네이틀의 미니 버전 워치. 기존보다 사이즈가 작은 에그 셰이프 케이스가 여성스러움을 극대화한다. 그물망처럼 짜인 정교한 채인 형태의 로즈 골드 브레이슬릿이 안락함을 주는 동시에 손목에 완벽하게 밀착하는 것이 특징. 베젤과 다이얼 플렌지, 리그에 총 1.32카트의 다이아몬드 1백39개를 세팅했다. 7천3백만원대. **카르띠에 칼레 드 가르띠에 주얼리 워치** 커를 워치로도 사랑받고 있는 워치 컬렉션. 가르띠에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아이코닉 워치인 만큼 다양한 크기, 컬러, 소재로 선보여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프랑스어로 열쇠를 뜻하는 이름처럼 열쇠를 연상케 하는 크라운이 눈에 띄며,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화려한 핑크 악어 가죽 스트랩을 매치해 여성스러움을 부각했다. 3천만원대. **볼가리 루체아 다이아몬드 워치** 빛과 시간의 영원한 관계에서 영감을 받은 여성 워치. 모던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이는 마치 고대 로마의 해시계를 연상케 한다. 독특한 형태의 브레이슬릿이 돋보이며, 베젤 리안과 브레이슬릿, 다이얼 전체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극대화했다. 6천만원대.



스와로브스키 장식이 돋보이는 레드 컬러 세린 하이힐 로저 비비에.



Romantic Rings for Couples

(왼쪽 상단 첫 번째 대리석 위부터) **부쉬론 퀴르트 컬렉션** 아이코닉한 네 가지 모티브를 각기 다른 소재로 완성한 부쉬론의 베스트셀러 컵플링. 클래식 스몰 링 4백만원대, 클래식 스몰 링 5백만원대. **가르띠에 인그레이드 컬렉션** 밴드 링 위에 로고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클래식하면서도 우아하다. 루 포인트 다이아몬드 링 3백30만원대, 흰 포인트 다이아몬드 링 4백70만원대. (오른쪽 맨 위 대리석 왼쪽부터) **샤넬 화이트 주얼리 올트라 미니 컬렉션** 세리니 소재를 사용한 현대적인 디자인의 컵플링. 블랙 링 1백만원대, 화이트 다이아몬드 링 4백만원대. **샤넬 화이트 주얼리 코코 크리쉬 컬렉션** X자를 연상케 하는 골드 패턴이 인상적인 밴드 링. 옐로 골드, 화이트 골드 각각 2백만원대. (중앙 왼쪽 대리석 왼쪽부터) **타파니 이블라스 컬렉션** 타파니 뉴욕 본사 야외에 설치된 청동 시계의 로마숫자에서 영감을 받은 컵플링. 스몰 링 3백만원대, 다이아몬드 라지 링 5백만원대. **타파니 TCO 컬렉션** 로고 좌우로 세팅한 2개의 다이아몬드가 포인트인 컵플링. 로즈 골드 링 1백만원대, 플래티넘 링 2백만원대. (중앙 오른쪽 대리석 왼쪽부터) **반클리프 아펠 베클러 시그니처 컬렉션** 원형 비즈 장식과 로고 시그니처가 특별한 컵플링. 각 2백만원대. **가르띠에 리브 컬렉션** 카르띠에 리브 브레이슬릿에서 영감을 얻은 리브 컬렉션 컵플링. 슬리터 링 0.24카트 기준 5백20만원대, 밴드 링 2백40만원대. (오지막 줄 왼쪽 대리석 왼쪽부터) **볼가리 에미 컬렉션** 이름에서부터 로맨틱함이 느껴지는 컬렉션으로, 간혹이 돋보이는 세팅이 특징. 5 포인트 다이아몬드 링 3백만원대, 1 포인트 다이아몬드 링 2백만원대. **루시에 클로세 컬렉션** 거대한 탐인 총루와 그 안에 비친 원기 카리옹에서 영감을 받은 우아한 곡선 디자인의 컬렉션. 남자 밴드 링 1백만원대, 여자 밴드 링 1백50만원대. (오지막 줄 오른쪽 대리석 왼쪽부터) **볼가리 비.제로 컬렉션** 빈지 옆면에 로고를 새긴 모던한 디자인의 컵플링. 밴드 링 1백만원대, 다이아몬드 링 6백만원대. **타파니 피아노 컬렉션** 피아노 건반처럼 디자인된 컵플링. 남자 밴드 링 1백70만원대, 여자 밴드 링 1백20만원대.



레이스업 슈즈 벨루티,
슈트 패브릭은 에르메네집도 제나.

Men's Classic Watches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오메가 드 빌 아유비진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에뉴얼 캘린더 메타스(METAS) 인증을 받은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903을 탑재해 가장 진보된 기술력을 보여준다. 3시 방향에 에뉴얼 캘린더와 날짜창이 위치하며, 심플한 로마숫자 인덱스로 클래식 워치의 정석을 보여준다. 1천1백만원대. **브뤼게 클래식 5177 화이트 골드** 수많은 클래식 워치 중 위치 마-아들의 위시 리스트에 오르는 클래식 5177 모델. 한눈에도 브뤼게 시계임을 알 수 있는 달 모티브의 블루 스틸 핸즈와 클래식한 로마숫자 인덱스, 날짜창을 배치했으며, 실리콘 레버와 아스케이프먼트를 장착한 셀프와인딩 무브먼트 777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2천2백만원대. **티파니 CT60 크로노그래프 워치** 1945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선물로 받은 티파니 골드 워치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깔끔한 선과 단순한 미학이 돋보이는 디자인, 스위스 장인이 완성한 최고 퀄리티의 부품을 결합한 유니크하고 세련된 남성 워치다. 8백만원대. **블랑팡 발파네 GMT 알람 워치**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큰 사랑을 받아온 블랑팡의 베스트셀러 컬렉션. 올해 새롭게 GMT 알람 기능을 더해 더욱 파워풀해진 연모로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 더블 타임 존, 알람 파워 리저브 표시 7개와 함께 6시 방향에는 날짜창이 자리 잡고 있으며, 오묘한 빛깔의 플링케 오벌린 다이얼과 별의 곡선을 연상케 하는 세이브 블루 핸즈가 돋보인다. 2천2백만원대. **몽블랑 해리타지 크로노메트리 울트라 슬림 워치** 아주 얇고 가벼운 울트라 슬림 케이스 워치. 38mm의 다이얼 사이즈에, 두께는 5.8mm로 확연히 얇은 두께를 자랑한다.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실버 다이얼, 그 위에 같은 컬러의 인덱스, 핸즈로 깔끔하고 스포티한 분위기를 풍긴다. 2백64만원. **크로노스위스 시리우스 오토매틱 스틸 워치** 심플함수록 멋스러움이 빛을 발한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시계. 시간을 나타내는 필수적인 요소를 표제해 기능성을 높였고, 초박형 케이스와 짙어진 리그를 적용해 손목에 착각하는 착용감 역시 훌륭하다. 5백60만원.



Wedding Jewelry for Bride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행운의 아이리언 알함브라 펜던트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매직 알함브라 롱 네크리스 3천1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단아하고 여성스러운 동백꽃 한송이를 표현한 0.99캐럿 7캐럿 화이트 골드 링. 6백만원대. **사펠 화인 주얼리**, 뛰어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펜던트의 코로나 네크리스 1캐럿 기준 3천만원대. **불가리아**, 깃털 모티브를 정교하게 세공한 화이트 골드 물품 링 1천2백만원대. 유성 모티브를 5개의 진주와 45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코메트 애프터알 배출레 링 1천4백만원대. 모두 **사펠 화인 주얼리**, 12mm 남장진주와 0.57캐럿 다이아몬드를 18K 화이트 골드 직선 바 위에 세팅한 벨런스 클래식 링 2천2백만원대. **타사키**, 장미꽃양을 형상화한 패발 링 2백30만원대. **루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밴드를 X자 옐로 골드 모티브가 감싸고 있는 디자인이 유니크한 식스틴 스톤 링 1천5백만원대. 마르조 컷 다이아몬드로 꽃양을 표현한 빅토리아 라인 브레이슬릿 3천만원대. 모두 **티파니**, 사랑의 자물쇠를 연상케 하는 독특한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파베 사펠 아몰레드 드 카르피에 링 1천3백만원대. **카르피에**, 양재감 있게 디자인한 화이트 세라믹 & 다이아몬드 바전의 울트라 링 4백만원대. **사펠 화인 주얼리**, 손을 움직일 때마다 잘링거리는 화려한 화이트 골드 불이 매력적인 파리 누벨라그 컬렉션 링 1천2백만원대. **카르피에**, 가장자리에 화이트 골드 불을 세팅한 물방울 모양의 다이아몬드 펜던트가 포인트인 사펠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 6백만원대. **부세론**, 하트 세이프로 이루어진 인텐트 하트 키 펜던트 1천7백만원대, 아름다운 곡선으로 화려한 펜던트를 완성한 인텐트 스크롤 펜던트 네크리스 1천8백만원대. 모두 **티파니**, 최상급 이코아 진주 5개를 18K 옐로 골드 바 위에 세팅한 화려하고 대담한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는 벨런스 시그니처 링 3백10만원대, 18K 옐로 골드에 최상급 이코아진주 3개를 옐로로 세팅한 유니크한 스타일의 벨런스 아래 링 2백40만원대 모두 **타사키**.

블랙 보타이, 버건디 보타이 모두
 랑방 옴므, 블랙 라이스업 슈즈
 다음 옴므, 샹페인 토퍼라냥,
 도트 프린트 스크 머플러 폴코드



Wedding Band for Bridegroom

(왼쪽 페이지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스크로 도트 보타이 부분을 제외한 밴드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부각한 러브 링 1천700원대, 골판지 밴드 링에 커브피에 로고와 개개인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 특징인 까르띠에 인크레이브드 웨딩 링 4백70만 원대 모두 까르띠에, 우아하고 심플한 디자인의 블랙 세라믹 올트라 미니 화이트 골드 링 1백만 원대, 골드하고 입체감 있게 디자인한 블랙 & 다이아몬드 바짓속의 올트라 링 4백만 원대 **샤넬 화이트 주얼리**, 방직 태두라에 작은 원형의 세심하게 세공해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을 완성한 인크레이브드 링 1백만 원대, 알파벳 T가 자신 수직축이면서 도 강렬한 디자인에서 유니크함이 느껴지는 화이트 골드 T 스퀘어 링 1백만 원대 모두 **타파니**, 피아노 건에서 영감을 받아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는 사쿠라 골드 화이트 밴드 링 1백70만 원대 **타사키**, (블랙 보타이 옆) 화이트 실 테린 카르스 링크 60만 원대 **까르띠에**, 1960년대 빈티지 영감을 받은 클래식한 디자인의 오토매릭 워치로, 피워 리저브를 80시간으로 늘린 ETA C07.611 무브먼트를 탑재한 우물 클래식 워치 1백40만 원 **리도**, 화이트 다이얼과 18K 로즈 골드 케이스가 아우라처럼 중후한 멋을 자아내는 알파벳트 클래식 워치 4백만 원대 **롤진**, (오른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 다른 링과 레이아웃도 멋스러운 클래식하고 심플한 블랙 & 화이트 매치가 돋보이는 카르띠에 블랙 웨딩 밴드 2백만 원대, 네 가지 시그니처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더한 파르트 블랙 다이아몬드 스몰 링 9백만 원대, 화이트 골드와 블랙 PVD 소재를 결합해 무심코 고유의 네 가지 모티브를 모던하게 표현한 파르트 블랙 리저브 링 6백만 원대 모두 **부세론**, 심플하면서도 링에 곡선을 더해 세련된 느낌을 주는 사쿠라 골드 인피니티 링 1백20만 원대 **타사키**, 타사키 로고 좌우로 라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TCO 로즈 골드 밴드 링 1백만 원대 **타파니**.

(오른쪽 페이지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 풍요, 지혜, 발명과 정수를 상징하는 뱀에게서 영감을 받은 세르펜티 링크 골드 웨딩 밴드 1백만 원대, 불가마를 상징하는 웨딩 밴드, 인크레이브드 더블 로고 중앙에 다이아몬드를 장식한 불가마 불가마 화이트 골드 웨딩 밴드 2백만 원대 모두 **불가마**, 브리지를 상징하는 알파벳 B 로고가 시선을 사로잡는 9903R 카르스 링크 6백만 원대 **브리제**, 감각적인 자그재그 패턴을 인크레이브드한 헤비톤 라인 대표 미니 클립 30만 원대 **까르띠에**, 부드러운 곡선 디자인이 유니크한 라벨로 화이트 골드 밴드 링 2백50만 원대 **타사키**, 플라티넘 밴드 중앙에 세팅한 옴므 다이아몬드와 밴드 측면에 인크레이브드한 이터널채인의 빈들리프 이벨 로고가 포인트인 뉴요 밴드 링 4백만 원대 **반디고** **아벨**, 단순하고 평범한 곳에서 모티브를 얻어 독특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저스트 영 클루 링 2백30만 원대 **까르띠에**, LV 로고 장식의 미니 클립 30만 원대 **루이 비통**, 시계의 문패이조를 형상화한 카르스 링크 3백79만 원 **불랑팡**, 타카미티 스퀘어를 묘사한 현대적인 세라믹 배럴, 허지 모양의 스틸 브레이슬릿, 빈티지 카운터에서 영감을 받은 이터널이슈저 텍스 와 닥풀링이 특징인 43mm 까르띠에 칼리버 1837 크로노그래프 5백만 원대 **태그호이어**, 에디트 베이진, **권유진**

타파니 02-547-9488 부세론 02-3213-2246 샤넬 화이트 주얼리 02-3442-0962 반 클리프 아벨 02-3479-6032 불가마 02-2056-0172 까르띠에 1666-7277 타사키 02-3461-5558 루시예 02-512-6914 오메가 02-511-5797 브리제 02-3438-6218 불랑팡 02-2118-6053 크로노스워스 02-310-1737 불랑팡 02-6905-3367 에트레스 02-3448-0728 태그호이어 02-548-6020 론진 02-3149-9532 리도 02-3149-9582 엘보 02-3449-5916 다음 옴므 02-513-3232 랑방옴므 02-3438-6254 랑스미어 02-542-4177 토포 코드 02-3438-6234 까르띠에 1566-7277 루이 비통 02-3432-1854 벨루티 02-547-1895 에트레-레짐도 재나 02-518-0285 로저 비비에 02-3438-6268 토포 파라냥 02-2188-5100

Pattern Play

오랜 전통과 장인의 손길로 완성한 가구와 리빙 아이템이 가득한 에르메스 홈 컬렉션에서는 침상에 포인트가 되어줄 화려한 패턴의 침구를 제안한다. 다크 그레이 컬러의 퀴츠 쿠션 20만원대, 역동적인 말 패턴의 슈보 디퍼리 쿠션 90만원대, 그레이 컬러의 허브 패턴 쿠션 20만원대, 블루·베이지·화이트 컬러 조합의 에르메스 특유의 말 프린트가 고급스러운 시트 2백만원대, 인디언 스타일의 정원에서 영감을 받은 식물 프린트가 인상적인 저널링 도자이크 플레이드 4백만원대, 옐로 컬러 트레이 40만원대, 블루 커피 컵 세트 30만원대, 레드 컬러 트레이 40만원대, 육각형 패턴 크리머 20만원대, 그린 컬러의 벨리 24 컵 10만원대 모두 에르메스, 문의 02-544-7722



Modern Stylish

스타일미한 가구부터 침구까지, 인테리어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베딩은 모던한 컬러의 기법과 시원한 리넨 침구를 추천한다. 침대 위 기하학적인 프린트의 실크 쿠션 10만원대 모두 **집담스 by 섀퍼**, 블랙, 그레이 컬러의 리넨 소재 이불 9만원대, 매트리스 커버 10만원대 모두 **베딩을 by 섀퍼**. 나무 자제의 아름다운 부각한 질감 장한 9만원대 **에스노 크래프트 by 섀퍼**, 1921년부터 오리지널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던한 램프 40만원대 **라그라스 by 섀퍼**, 문의 02-549-6701



healing Night

숙면을 위한 폭신한 침대만큼이나 중요한 베딩. 어떤 침구를 고르느냐에 따라 신혼집 분위기가 달라진다. 신혼부부의 완벽한 힐링 공간을 완성할 네 가지 베딩 컬렉션. *photographed by koo eun mi*

리빙 스타일리스트 이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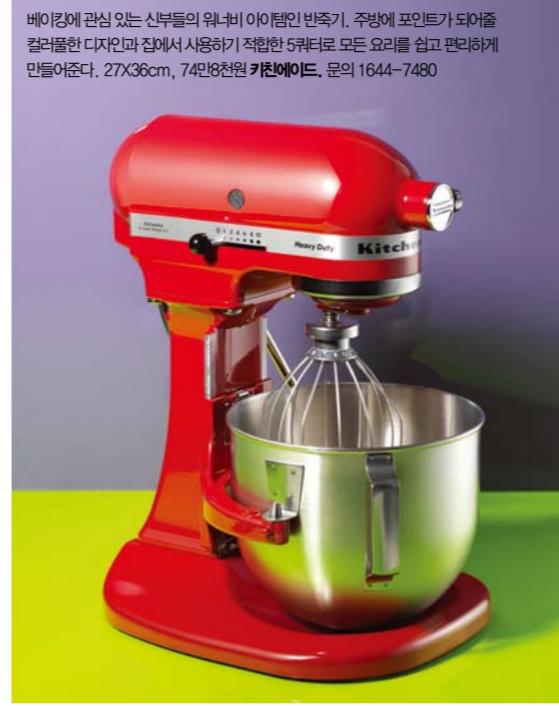
Steady Check

리넨이나 화학 재료가 아닌 순면, 울, 천연 이마, 호스하이 같은 100% 천연 소재만을 채택한 충전제로 사용해 스웨덴 앙상블 침구업체로 선정된 헤스텐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살린 유행 타지 않는 체크 프린트 침구를 제안한다. 화이트 컬러의 오리지널 새틴 체크 베개 커버와 이불 커버 세트 1백만원, 오리지널 블루 체크 베개 커버 18만원 모두 **헤스텐스**, 문의 02-516-4973 에디터 **김지혜**
※ 패시지에 소개된 모든 침구는 사이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Prestige Gold

사용자의 체중과 물의 양에 따라 변화되는 독창적인 스프링 기술로 럭셔리 침대의 상징이라 불리는 맥시마나. 이번 시즌 맥시마나의 침구는 별을 닮은 골드 컬러 자수로 침구의 품격을 한 단계 높였다.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소재부터 신경 써서 100% 수직업으로 완성한 침구 세트 1백50만원대 **맥시마나**, 문의 02-512-6551



베이킹에 관심 있는 신부들의 워치 아이템인 반죽기. 주방에 포인트가 되어줄 컬러풀한 디자인과 집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5쿼터로 모든 요리를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27X36cm, 74만8천원 **카탈에이드**, 문의 1644-7480



날개 없는 청소기로 잘 알려진 다이슨 AM06. 조용하지만 강력한 바람과 관리하기가 쉽다는 점이 구매력을 불러일으킨다. 모던한 디자인과 책상 위에 두어도 좋은 사이즈로 실용적이기까지 하다. 49.6X25cm, 54만8천원 **다이슨**, 문의 1588-4253



360도 전 방향에서 시운드를 제공해 어느 위치에서든 동일한 시운드를 즐길 수 있는 베오릿 15. 양중량은 도사락 디자인이 특징으로 신혼집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제격이다. 23X18.8cm, 69만원 **베오릿**, 문의 02-518-1380

Sweet machines

테크 제품만큼 점점 더 작게를 의치는 분야가 또 있을까. 스마트한 기능은 더하고 사이즈는 줄인 소형 가전이 새로운 후수 트렌드로 부상했다. 집 꾸미는 재미에 푹 빠져 있을 예비 신혼부부에게 강력하게 어필할 미니 가전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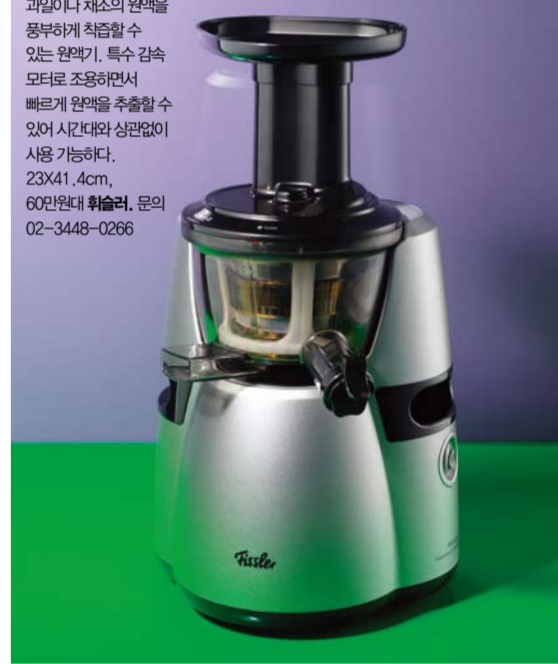
텐데이블을 연상시키는 도킹 스피커. 아날로그 감성을 담은 디자인에 은은한 조명 효과를 내는 LED 디스플레이를 더해 모던하면서도 클래식한 분위기를 동시에 풍긴다. 스마트폰을 꽃으면 충전될 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USB 디바이스 리코딩 기능을 통해 외부 음원을 MP3로 변환해 USB에 저장할 수도 있다. 35.5X13.8cm, 39만9천원 **LG전자**, 문의 1544-7777



반트지한 디자인과 사랑스러운 컬러가 스타일미한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 에스프레소뿐만 아니라 집에서든 카페에서도 카푸치노를 즐길 수 있다. 3개의 버튼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매력적이다. 26X29cm, 49만8천원 **드롱기**, 문의 080-488-7711



강력한 모터로 탑재해 과잉이나 레스의 잔해를 풍부하게 착즙할 수 있는 원액기. 특수 감속 모터로 조용하면서 빠르게 원액을 추출할 수 있어 시간대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23X41.4cm, 60만원대 **휘슬러**, 문의 02-3448-0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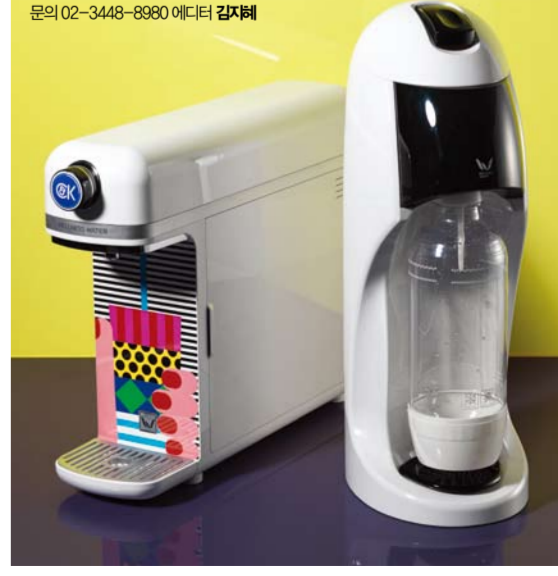
에어프라이어 기술로 기름 없이도 베이킹, 튀김 등 다양한 요리를 조리할 수 있는 뉴 디자인 에어프라이어. 지방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28.7X31.5cm, 37만9천원 **필립스**, 문의 02-709-1200



스메그의 아이코닉한 곡선 디자인이 돋보이는 토스터. 재기열, 해동, 베이킹 굽기 기능을 추가했다. 북유럽 스타일의 주방을 꾸미는 예비 신부에게 추천한다. 21.5X39.4cm, 23만원 **스메그**, 문의 1588-2644



(왼쪽부터) 세균이 생기기 쉬운 자수조를 없앤 착수형 정수기. 화이트 디자인이 크레딧과 컬러배너로 선한 제품으로 감성적인 패턴이 주방을 화사하게 만들어준다. 11.5X32cm, 월 1만4천원 **스피클링 워터**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W 탄산수기. 집들이에 초대된 손님에게 카페 못지않은 음료를 대접할 수 있다. 15.3X43.6cm, 월 1만4천원 **모두 바디프렌드**, 문의 02-3448-8980 에디터 **김지혜**



the most precious Heritage

작년 7월, 새로운 여성복 디렉터를 영입한 에르메스의 선택에 전 세계 패션 피플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과연 그 선택은 옳았을까? 물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첫 컬렉션 후 그 대답은 놀라우리만치 청신호에 가까웠다. 2015년 3월 파리 컬렉션에 이어 다시 선보인 지난 6월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서의 컬렉션은 그 가능성에 더욱 확신을 갖게 해주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자극히 에르메스다웠던 새로운 첫 컬렉션과 수줍은 듯, 그러나 거침없었던 그녀와의 도쿄 현지 인터뷰.

에르메스의 변함없는 우아함, 그리고 새로운

에르메스는 2014년 7월에 새로운 여성복 이티스틱 디렉터로 나테주 바나-시블스키(Nadège Vanhee-Cybulski)를 임명했다. 그리고 2015년 3월, 2015 F/W 파리 컬렉션 기간 동안 그녀의 첫 번째 컬렉션이 공개되었고, 지난 6월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그녀의 첫 번째 컬렉션을 한 번 더 선보였다. 나테주 바나-시블스키의 첫 번째 에르메스 쇼는, 에르메스의 전통과 유산, 그리고 장인 정신을 다짐을 확인시키는 쇼였다. 그녀는 최고급 소재와 여성의 실루엣을 강조한 우아한 룩으로 에르메스만의 스타일을 한껏 선보여 왜 에르메스가 그녀를 선택했는지 많은 이들이 수긍하게 만들었다. 특히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펼쳐진 런웨이는 전통적인 동양미와 에르메스의 절제된 우아한 의상들이 어울려 단정함을 자아낼 정도로 인상적이기도 했다. 그녀가 선보인 첫 번째 에르메스 컬렉션은 세 가지 테마, 즉 에르메스의 헤리티지 인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스타일, 우아한 여성미를 강조한 엘레강트 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브닝 웨어로 구성되었다.

1백78년 전, 마구용품으로 시작한 에르메스의 슈마 헤리티지는 가족과 실크 소재의 기교함을 통해 고급스럽게 표현되었고, 모던한 실루엣은 여성스러운 우아함을 극대화해 누구나 입고 싶다고 생각할 만큼 아름다웠다. 또 피에

르 이로드(Pierre Hardy)가 디자인한 오프비 주얼리(Haute Bijouterie) 컬렉션과 함께 선보인 이브닝 드레스는 은은한 럭셔리함으로 쇼의 파날레를 멋지게 장식했다. 새로운 백인 옥타곤은 세 가지 사이즈로 선보였는데, 클러치, 토트백, 숄더백 등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 럭셔리하면서도 실용적인 에르메스의 위력을 느낄 수 있었다. 깊은 네이비와 레드, 블루와 옐로, 그리고 화이트로 마무리된 피날레까지, 다양한 색상과 스타일, 그리고 완벽한 디테일과 절제된 실루엣을 멋지게 선보인 그녀의 첫 번째 컬렉션은 에르메스 하우스의 전통, 아이코, 그리고 최고급 소재 등을 잘 보여주는 많은 이들의 환호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에르메스에서 데뷔 쇼를 마친 나테주 바나-시블스키. 이제 막 첫발을 내딛었지만 조금은 성급한 판단을 해도 될 듯하다. 아주 에르메스답게 익숙한, 하지만 참신함으로 무장한 모던함. 곧 다가올 다음 시즌의 런웨이가 기대되는 이유다.



interview_Nadège Vanhee-Cybulski “우아함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싶었습니다”

젊은 여성 디자이너가 에르메스의 여성복을 맡게 된 것에 대해 기대가 크고 궁금하다. 당신의 소감은 어떤가? 새로운 장을 열게 되어 무척 기대됩니다. 에르메스는 저에게 어떤 기쁨을 한대기보다는 넓은 포용력과 진정한 호의를 보여줍니다. 에르메스는 우수한 퀄리티와 창의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성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같았습니다. 장인적 필리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아한 퀄리티를 추구하는 부분은 모든 사람이 에르메스를 존중하게 만들죠. **첫 에르메스 여성복 컬렉션을 선보일 때 가장 중요시한 부분은?** 소재의 진정성 있는 관계가 중요하니까요. 소재와 노후에 있어 절대로 작당히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에르메스의 대표적인 소재는 가죽이다. 이 대표적인 소재가 당신을 통해 어떻게 재해석될지 궁금하다. 가죽이 정말 에르메스의 유산이면서 혁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기쁨을 갖게 하는 소재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에르메스에서 처음으로 작업한 디자인 중 하나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켈트 가죽에 대한 아이디어는 슈마에서 가져왔어요. 인장 모양의 주머니도 마찬가지죠. 제게는 여성과 에르메스를 구성하는 DNA인 마구 제조법을 조화하는 상징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소재를 사용해서 신선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고, 깃털처럼 가벼운 가죽 소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나의 아름다운 오브제를 인기 위해서는 매우 현실적인 면모도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사용한 방식 처리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그저 옷밖에 갈아두는 것이 아니라, 비에 젖을 걱정없이 자유롭게 밖에서도 착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펠트로 만든 가죽은 매우 아름다우면서도 인상적이었어.** 인감을 곡새나 니플론으로 마감 처리했는데, 이 작업 역시 제겐 큰 모험이었습니다. 저는 캔틸레타리 한 느낌을 붙여보고 싶어 필리터가 우수한 니플론과 혁신적인 캔버스, 라틴을 사용했습니다. 이 소재들은 엄청 가볍고, 착용하기 편하며 숨도 쉬는 소재입니다. 전 소재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시물랄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죠. **이번 컬렉션에서 선보인 색상들도 너무 아름답다. 어떤 색상을 제일 좋아하나요?** 대답하기 정말 어렵네요. 전 다양한 색상을 좋아합니다. 에르메스에는 두 가지 테마의 색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죽은 흙처럼 자연의 색상에 속하고, 실크는 다채롭게 빛나는 색상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 에르메스에서 첫 번째로 선보인 컬렉션을 통해 이 두 가지 색상에 경의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여성복을 디자인하면서 중요시한 부분은 무엇이며 또 그것을 에르메스의 여성복에 어떻게 반영하고 싶나요?** 여성복 디자인으로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여성과의 교감입니다. 교감하기 위해 우선 공감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여자들이 원하는 옷이 아니라, 입고 싶은 옷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자를 자유롭게 해주는 옷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더 아름답게 해주죠. **컬렉션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는 물론 많은 것을 보여주는 종합예술이기도 하다. 이번 컬렉션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무엇인가?** 우아함에 대한 새로운 미학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진정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건 우아함과 강인함이었어요. **파리에 선보인 당신의 첫 컬렉션은 매우 모던하고 인상 깊었다. 컬렉션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나?** 저는 에르메스의 모더니티(modernity)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에르메스는 언제나 동시대를 위한 제품을 만들어왔어요. 밑에서 자동차 시대를 넘어올 때, 에르메스는 사대의 큰 변화를 이해해 흐름을 포용했습니다. 말을 타는 사람들이 없다고 해도 쇠라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진정으로 동시대성을 관찰했던 것이죠. 그냥 정제되어 있는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전 그동안 에르메스의 여러 오브제를 보았고, 에르메스가 각 오브제가 속한 시대를 반영하는 동시에 시대를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즌을 준비할 때 당신의 의의 같은 것이 있는가?** 매우 우아하지만 멋과 실용성이 어우러져야 해요. 어느 시점에 그대, 이제 세 컬렉션을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순간순간과 함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독서를 좋아하고 인터리어 디자인을 보고 영감을 받을 줄도 좋아하며 전통적인 미술품이나 문화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영감의 원천은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크 뉴슨의 디자인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고대 도자기에서도 훌륭한 미학을 발견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영감이 되고 생각됩니다. **최근 당신의 호기심과 관심을 자극한 것은?** 휴가를 다녀왔는데 LACMA(LA 카운티 미술관에서 본 크리스 바덴(Chris Burden) 전시가 매우 흥미로웠어요. **파리 컬렉션과 도쿄 쇼의 차이점은?** 파리에서 선보인 여성복 쇼의 본질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아름다운 도쿄의 건물과 조화를 이루게 하려고 했어요. 파리 쇼보다는 훨씬 더 친밀감이 느껴지는 쇼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리보다 더 가까이서 컬렉션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house of D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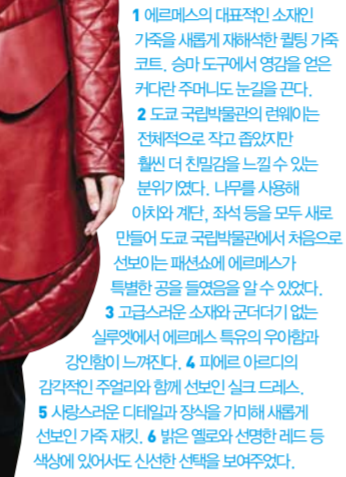
크리스찬 디올처럼 짧은 기간에 인기와 명성을 얻은 패션 디자이너도 드물 것이다. 1947년 2월 12일 파리 몽테뉴가 30번지에서 뉴 룩으로 회자된 자신의 첫 컬렉션을 선보인 그는 10여 년간 패션계를 지배했지만 안타깝게도 57세에 운명을 달리했다. 하지만 우아함과 여성미의 절정을 보여준 '무수 디올'의 창조적 오라는 오늘날에도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로 강력한 듯하다. 몽테뉴가 디올 쿠튀르 하우스의 DNA가 느껴지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이 배어 있는 범상치 않은 6층짜리 건축물이 서울 청담동 중심부에 들어섰다. 디올 쿠튀르와 20여 년을 함께해온 시드니 톨레다노(Sidney Toledano) CEO를 만나 이 공간의 스토리를 들어봤다.

청담동을 새롭게 수놓은 매혹의 공간

요즘 청담동 거리를 거닐다 보면 우아하게 굽어지는 모양새가 허한 듯 같기도, 천 자라 같기도 한 독특한 외관이 눈길을 사로잡는 건물을 맞닥뜨릴 수 있다. 이미 입소문이 자자하게 난 크리스찬 디올의 플래그십 매장 하우스 오브 디올(House of Dior)이다. 파리의 도시 재정비를 맡길 만큼 프랑스가 사랑하는 세계적인 건축가 크리스찬 드 포르잔파르크의 작품이라 화제가 되기도 한 건물로, 아시아 최대 규모 매장이라고 한다. 가까이서 보면 한 층이 꽃이 겹겹이 드러나 베일을 쓰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든다. 디올 하우스를 보고 떠올리는 이미지도 저마다 다르겠지만, 바라보는 외곽의 거리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 점이 흥미롭다. '무수 디올'의 아카이브를 열심히 탐구한 끝에 오프 쿠튀르 드레스 완단의 흐름에서 건축 디자인의 영감을 받았다는 포르잔파르크는 실제로 20m, 10m, 5m 거리에서 디올 하우스를 바라봤을 때 각각 다른 느낌이 들도록 신경 썼다고 한다. "건축 디자인이나 규모도 놀랄만할 일 단발을 들여놓으면 알 수 있듯 디올 매장은 굉장히 공들여 빚어낸 공간입니다. 아주 작은 요소 하나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방, 계단, 수납장까지도 전부 평범한 것이 없으려면 모두 다르죠." 베르사유 궁전을 찍은 로버트 폴리도리의 사진 작품이 걸려 있는 VIP룸에서 톨레다노 CEO는 이렇게 말했다. 수화과 엔지니어링을 공부한 공학도인 그는 우연찮게 패션의 세계에 뛰어들어 디올 쿠튀르에만 20년 세월을 바쳐온 디올 맨이다. 그의 말처럼 세세적인 디자이너 피터 마리노의 손길이 닿은 디올 하우스의 매장 인테리어는 눈발미가 있다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하나하나 신경 쓴 흔적이 엿보인다. 예를 살짝 들자면 1층에 한국의 대표적인 설치 작가 이불(Lee Bull)의 작품 '브루노 타우트 이후(After Bruno Taut)'가 걸려 있고, 은행잎을 모티브로 삼은 클로드 랄랑의 징고 벤치가 놓여 있으며, 3층 매장의 천장은 룬 원의 유리공예 작품으로 장식되어 있다. 맨 꼭대기 층에는 피에르 에르메의 미시 세계를 접할 수 있는 쾌적한 카페까지 들어서 있다.

메탈릭 그레이빛이 감도는 현대적인 감각 속 '디올 DNA'

동대문 DDP에서 열고 있는 <디올 정신>전을 관람했다면 아마도 이 공간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분모'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꽃 같은 여성을 디자인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크리스찬 디올 특유의 여성미가 감도는 우아한 스타일과 브랜드를 상징하는 '하우스 컬러인 회색 색조다. "무수 디올이 몽테뉴가에 디올 쿠튀르 하우스를 열었을 때도 그레이와 화이트가 쓰였지요. 이처럼 디올의 상징과도 같은 '그레이는 이 공간에서는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메탈릭 그레이로 표현했습니다. 색채의 농담(濃淡)을 달리한 다양한 회색이죠." 실제로 디올 하우스를 둘러보면 그레이 가죽과 메탈 느낌의 실이 얽혀 있는 바타의 카펫, 짙은 회색의 수납장, 은은한 색조의 그레이 카테릴 테이블 등 '그레이의 향연'을 방불케 한다. 전체적으로도 하나의 예술품 같다.



1 지난 6월 20일 서울 청담동에 들어선 6층짜리 디올 플래그십 스토어 '하우스 오브 디올'의 개장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디올 쿠튀르의 시드니 톨레다노 CEO. 2 디올 드레스 하우스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건물 설계는 프랑스가 내세우는 건축가인 크리스찬 드 포르잔파르크가 맡았다. 3, 4 스타 디자이너 피터 마리노의 손길이 닿은 세련된 인테리어. 테이블, 조명 등 각종 요소 전반 장중한 이티스틱의 작품이다. 5, 6 1층은 가죽 제품과 액세서리, 2층은 실용적인 이티스틱을 지원하는 파인 주얼리 & 티피피스, 3층은 레디투웨어와 수트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며, 지하에는 최후의 단독 옴므 부티크가 자리한다.

"무수 디올은 원래 아트 갤러리를 열면서 커리어를 시작했을 정도로 예술에 대한 애정이나 감각이 남다른 분이었고, 그게 그의 풍부한 패션 세계로 이어졌고요. 청담동 디올 하우스도 그러한 뿌리 깊은 디올의 DNA를 담은 공간입니다. 무수 디올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세계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펼쳐 보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컬러를 이해하는 한국 고객들에게 디올의 정수를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디올의 정수를 '우아함', '매혹', '장인 수준의 정교한 솜씨'라는 세 단어로 압축한 그의 설명이 굳이 아니더라도 흔치 않은 럭셔리 공간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 매장은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에디트 고성현**

플라워 모티프로 장식한 일은 실크
롱 드레스 Max Mara Bridal.
반지 Sharra Pagano.

White Dream

화려한 스타일부터 미니멀한 스타일까지, 드레스에는 그녀의 취향이 담겨
있다. 저녁에는 고혹적인 섹시함을, 낮에는 순수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이탈리언 클래식 드레스 컬렉션. *photographed by marco la conte*

화려하고 섬세한 레이스의 스타디스
드레스 Colet by Nicole Spose.
실버오크리얼 이어링 Comete Gioielli.
발등을 덮는 대담한 디자인의 샌들
Laurence Dacade.





꽃 모양 레이스로 전체를 완성한
긴소매 미크라메 드레스 Emé di Emé.
작은 골드 링 Salvini.



허리에 리본 장식이 있는 언밸런스한
실크 드레스 Blumarine Sposa.
반지와 귀고리 Sharra Pagano.





보디 부분은 주름을 잡아 장식하고,
조각선 천으로 아름답게 파는 치마를
디자인한 드레스 Pronovias.
귀고리 Sharra Pagano.



긴 트레인을 단 오간자 드레스
Flora by Tosca Sposa.
골드 링 Salvini. 니파 가족의
화이트 샌들 Philosophy.

헤어 Michele Garziano(Auraphoto)
메이크업 Kalja Wilbelmus(Closeup)
스타일링 Flavia Galantini, Francesca Ferretti



롤랑 뮈레가 영입된 후 새롭게 선보인 댈란(Dylan), 볼드한 굵과 색사한 알 트임 효과로 로베르 클레제리의 아이코닉한 슈즈로 떠올랐다. 모두 **로베르 클레제리**.

Timeless french chic

여성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가장 돋보이게 해주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 말하는 프랑스 슈즈 브랜드 로베르 클레제리(Robert Clergerie). 시크한 디자인, 편안한 착용감, 오랜 전통의 장인 정신이 담긴 슈즈로 여성들을 유혹하는 로베르 클레제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롤랑 뮈레(Roland Mouret)를 만났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완벽한 슈즈를 위한 여정, 로베르 클레제리

맛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신발부터 다르다. 1895년 프랑스 남부에서 탄생한 로베르 클레제리는 슈즈 마니아들 사이에서 이미 각광받는 브랜드 중 하나다. 지난해부터 국내 신세계백화점에서 판매하기 시작해 합리적인 가격대의 메이드 인 프랑스 슈즈로 입지를 굳힌 로베르 클레제리의 매력은 무엇일까. 우선 로베르 클레제리는 과거의 장인 정신과 현대의 기술력을 접목한 브랜드라 할 수 있다. 무려 1백20년의 역사를 지닌 로베르 클레제리의 슈즈는 프랑스에서 제작되며, 고급 수제화 제조 기법 중 하나인 굿이어 웰트 방식을 도입해 견고함을 자랑한다. 두 번째로 발과의 완벽한 핏을 빼놓을 수 없다. 신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착용감이다. 오래 신어도 발이 편안해야 좋은 신발이라 할 수 있듯, 로베르 클레제리는 인체 라인을 살린 슈즈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거기에 여성의 실루엣에 능숙한 디자이너 롤랑 뮈레를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해 모던하면서 심플한 제품으로 핏, 디자인, 품질 모두를 만족시킨다.

여성을 위한 디자이너, 롤랑 뮈레

전통을 이어가던 로베르 클레제리에 4년 전 큰 변화가 찾아왔다. 바로 여성복 디자이너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롤랑 뮈레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한 것. 프랑스 출신인 롤랑 뮈레는 1998년 자신의 이름을 딴 첫 번째 컬렉션을 선보였고, 여성의 보디라인에 따라 유려하게 흐르는 '갈럭시 드레스'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런 그가 슈즈라는 분야에 새롭게 도전하게 된 계기에 대해 물었다. "1980년대 로베르 클레제리 밑에서 일한 적이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저의 모던한 감성을 더해 아름다운 슈즈를 함께 제작해보지 않겠나

고 제안해 재미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롤랑 뮈레를 영입한 후 로베르 클레제리는 볼드한 굵이 특징인 '댈란'처럼 좀 더 구조적이고 모던한 슈즈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2015 F/W 시즌 콘셉트는 롤랑 뮈레가 1970년대에서 영감받아 탄생시킨 제품으로 구성되었다. "1970년대는 패션적 영감으로 가득 찬 시대입니다. 모두가 자유주의를 추구하고, 창의적인 표현이 넘쳐나는 시절이었죠. 남녀노소가 자유롭게 개성을 펼칠 수 있는 디자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라며 컬렉션을 소개했다. 이를 위해 한국을 처음 방문한 그는 신세계백화점 매장만을 위한 슈즈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는 "현재 아시아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 시장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패션과 디자인 분야에서 끊임 없이 영감을 주며, 한국 소비자들은 기술과 트렌드에 있어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며 아시아에서 유일무이한 한국 매장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또 그는 "로베르 클레제리의 슈즈는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 걷기 위한 것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디자이너로서 저는 외적인 디자인이나 편안함 중 하나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비전을 모두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로베르 클레제리의 슈즈는 프로방스 로망 빌리지의 공방에서 장인 정신에 따라 제작하고, 구조적인 힐과 유니크한 디자인을 적용해 편안함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라며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을 내비쳤다. 꾸준히 여성들을 위한 아름다운 드레스와 슈즈를 만들고 싶고, 무엇보다 자신감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없다고 말하는 롤랑 뮈레. 그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로베르 클레제리의 모든 제품은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10-5286 **에디터 김혜**



1 로베르 클레제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롤랑 뮈레. 이번 2015 F/W 컬렉션을 위해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스타일리스트하고 감성적인 그의 손을 거치면 로베르 클레제리의 신발이 완성된다. 2 매스클린 스타일의 옥스포드화를 비롯해 구조적인 디자인이 눈길을 끄는 구두 등 롤랑 뮈레가 아시아에 유일한 로베르 클레제리 매장인 신세계백화점 매장을 위해 디자인한 '이스클루시브' 제품.



Tiffany Diamond Rings

(왼쪽부터) 두 줄의 비드 세팅 다이아몬드가 쿠션 컷 다이아몬드를 감싸는 티파니 솔리스트 링, 환상적인 물방울 모양의 페어 세이프 솔리스트 링, 6개의 프롱이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완전히 둘러 올려 광채가 넘치는 티파니 세팅 링,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반짝임을 극대화한 하모니 링, 정교한 7개의 티파니 오벌 링, 티파니 하모니 링을 돋보이게 할 하모니 밴드 링, 소장 가치가 높은 에메랄드 컷 티파니 밴드 링 모두 **티파니**.



symbol of Love

웨딩 링의 대명사이자 결혼반지의 시초가 된 티파니 세팅의 전설. 다이아몬드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완벽한 티파니 웨딩 링의 반짝임에 뉴욕의 모던 클래식을 더한 티파니 워치까지 함께한 멋진 웨딩.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Tiffany CT60

(왼쪽부터) 역동적인 뉴욕의 라이프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티파니의 새로운 워치 컬렉션. 42mm 다이얼 사이즈에 셀프윈딩 기계식 무브먼트를 장착한 티파니 CT60 크로노그래프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와 로즈 골드에 악자극 스트랩을 매치한 버전으로 선보인다. 다이얼도 화이트와 브라운 솔레니 다이얼 중 선택할 수 있다. 여성용 워치인 티파니 CT60 3-Hand도 출시되었는데 34mm 다이얼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매치한 디자인으로, 역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와 로즈 골드에 악자극 스트랩을 더한 버전으로 출시되었다. 여성 워치에도 셀프윈딩 기계식 무브먼트를 장착해 품격을 높였다. 모두 **티파니**. 문의 02-547-9488 **에디터 배미진**

forever Classic

세월이 흘러도 사랑받는 고전처럼 클래식 백이 인기를 끄는 건 시간이 지나도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 때문 아닐까. 다양한 컬러와 디테일을 가미한 뉴 클래식 백이 새롭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펜디 셀라리아 파카부**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의 셀라리아 파카부(Selleria Peekaboo), 스타카가 포인트인 셀라리아와 펜디의 베스트셀러인 파카부가 만났다. 백 착용 시 인장이 보이도록 짐금장치를 열어서 드는 것이 더욱 스타일리시하다. 33.5x26cm 5백66만원.

루이 비통 락 미 II 직사각형으로 각진 미니멀한 디자인과 핏팅크 컬러로 포인트를 준 락 미 II(Lock Me II), 토트백으로 들면 단아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고, 스트랩을 달아 크로스 스타일링하면 캐주얼한 룩에도 잘 어울린다. 28x21.5cm 3백40만원대.

로저 비비에 미스 비브 로저 비비에 특유의 네모난 버클 장식이 특징인 미스 비브(Miss Viv) 소프트, 기존 버전보다 좀 더 와이드해진 버전으로, 넓은 수납공간이 눈길을 끈다. 31x21cm 2백84만원.

클로에 드류 지울식 가방으로 불리던 패딩턴과 구조적인 디자인의 파피에 이어 새로운 베스트셀러 이아렘으로 자리 잡은 드류(Drew), 투톤 컬러 가죽과 골드 체인 스트랩이 알렘하먼사도 클로에 특유의 여성스러움을 표현한다. 19x16.5cm 1백98만원.

디올 디올라마 미니 백의 인기에 힘입어 선보이는 디올라마(Diorama), 스트라이프 라인을 따라 새긴 플리워 프린트까지 주얼리처럼 정교하다. 18x10.5cm 3백만원대.

샤넬 헤링본 여자라면 누구나 하나쯤 소장하고픈 클래식 백의 정석, 헤링본(Herringbone), 블랙 & 화이트 컬러 양가죽과 사선 스티치 장식, 금장 로고를 더해 아담한 룩에나 잘 어울린다. 28x21cm 4백50만원대.

엘보 템페트 심플한 디자인으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템페트(Tempele), 큰 버클이 달린 브라운 백에 이어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으로, 디자인은 간결하지만 비비드한 컬러로 지루함을 덜었다. 27x21cm 4백만원대. 에디터 **김지혜**

클로에 02-6905-3670 디올 02-513-0300 로저 비비에 02-6905-3370 샤넬 080-200-2700 엘보 02-3449-5916 펜디 02-2056-9022 루이 비통 02-3432-1854



1 (왼쪽부터) 최상급 멜리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한 브릴론테 가드 링, 화려하게 세팅한 밴드에 1.57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비온드 솔리테어 링, 심플하고 단순하지만 최고의 세팅력으로 소장 가치가 높은 피아체테 1캐럿 다이아몬드 솔리테어 링, 부드러운 곡선의 꽃잎을 연상케 하는 1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라벨로 링, 파노는 건초처럼 디자인한 사쿠라골드(SAKURAGOLD) 컬러의 밴드에 0.37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파노 솔리테어 링, 최상급 12mm 남양주주에 0.57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타사키 고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밸런스 클래식 링 모두 **타사키**. 2 타사키를 대표하는 밸런스 링. 3,4 타사키 주얼리 박스와 웨딩 티아라.

Find the one

지구 깊은 곳에서 수백 년의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다이아몬드. 영원을 이야기하는 이 특별한 보석에 최고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한 타사키의 노력이 찬란한 워딩 링으로 결실을 맺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최고의 원석을 위한 다이아몬드 스페셜리스트

퀄리티가 뛰어난 진주를 촘촘히 세팅해 모두를 감탄하게 하는 밸런스 링으로 유명한 타사키. 완성도에 대한 놀라운 집념을 보여주는 타사키의 가치는 워딩을 위한, 소장 가치 높은 다이아몬드에도 이어진다. 지구 깊은 곳에서 수백 년의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다이아몬드의 빛을 더 아름답게 완성하려면 원석부터 달라야 한다. 타사키는 생소하지만 '사이트홀더' 자격을 갖춘 신뢰 높은 브랜드다. 이는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원석 공급원인 DBGSS(De Beers Global Sightholder Sales)에서 직접 원석을 거래할 수 있는 자격으로,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기업의 가치와 마케팅 능력,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신뢰도, 그리고 무엇보다 원석 평가 능력과 연마 기술이 뛰어나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유일한 사이트홀더 자격을 갖춘 타사키는 1994년에 자격을 취득한 후 고품질의 천연 다이아몬드를 안정적으로 매입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세계적인 품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사이트홀더로서 타사키를 대표해 런던으로부터의 원석 구입을 직접 담당하는 것이 다이만타르(diamantaire, 다이아몬드 취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인 에비스타니 마사노부다. 그는 경력이 30년 가까이 된 스페셜리스트로 지금까지 60만 개가 넘는 원석을 보고 선택한 바 있는데, 다이아몬드 산업이 발달한 이스라엘에서 이력을 쌓은 후 다이만타르로 인정받았다. 전통적으로 다이아몬드의 거래에서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몇십억 엔의 거래라도 마자르(신의 가호가 있기름)라는 히브리어 혹은 다이만타르와 약수를 나누는 것만으로 판매가 성립된다. 따라서 높은 신용이 필요한 거래이기 때문에 그 자격을 얻는 것도 쉽지는 않다. 또 다이만타르에게는 다이아몬드를 감정하기 위한 지식을 넘어서는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기에, 다이만타르가 되기 위해서 심리학자와의 면접을 시작으로 필적 감정, 거짓말 탐지기까지 4~5년에 걸친 여러 가지 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일본 타사키 본사에서 5주에 한 번씩 런던의 DBGSS로 자리를 옮겨 한 번에 수십억 엔의 원석을 거래하는 에비스타니 마사노부는 런던 외에 보츠와나, 나미비아, 캐나다 같은 원산지, 뉴욕이나 엔트워프 등의 다이아몬드 거래소를 찾아 세계 최신 동향을 살펴는 트렌디함도 갖추었다.

원석에 정성을 더하는 타사키의 다이아몬드

진주의 양식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총괄하는 타사키는 앞서 이야기했듯 다이아몬드 역시 원석 구입은 물론 자체 감정과 연마까지 직접 고집하는 브랜드다. 모든 원석은 숙련된 기술을 지닌 장인이 공정 과정에서 정확한 컷트를 시행함으로써 영원한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다이아몬드 연마는 1/100mm 단위의 연마와 연마량을 제어하는 치밀하



고 섬세한 작업이다. 또 컷팅에서 'Very Good' 등급을 받기도 힘들다고 여겨졌으나 타사키는 그 위의 단계인 'Excellent' 컷팅의 양산화에 성공, 다이아몬드업계 전체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 후 한층 기술을 높여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중 타사키 자체에서 연마하는 다이아몬드로 100% '3EX(트리플 엑셀러트)' 컷을 완성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 '3EX'는 컷의 종합 평가, 연마 마무리, 대칭성의 3개 항목 모두에서 최고의 장인 정신이 담긴, 전 세계적으로 한정적으로 생산되는 최고의 엑셀러트 컷이기에 광채와 완성도에서 완벽한 다이아몬드 링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최고의 원재료를 발견해 뛰어난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가 탄생하기까지 타사키의 노력은 한순간에 마음을 사로잡는 워딩 링으로 결실을 맺었다. 가장 가치 있는, 대를 물려도 손색없는 최고의 다이아몬드 링으로 타사키가 손색이 없다는 이야기다. 또 타사키는 예비 신부들을 위해 기간과 가격에 관계없이 2세 트 이상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화이트 컬러 2단 주얼리 함을 증정하고 1억원 상당의 진주 장식 프린세스 티아라를 대어해 주니 더욱 매력적이다.

문의 02-3461-5558

에디터 **배미진**



Luxe for wedding

고가지만 예단 품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인 퍼. 한번 구입하면 오래 두고 소장하는 만큼 신중한 선택은 필수다. 까다로운 러시아 왕족들과 뉴욕의 상류층을 사로잡은 퍼 브랜드 제이멘델이라면 선택의 고민을 접어두어도 좋다. 예단의 품격을 높이는 것은 물론, 보는 이를 압도하는 럭셔리한 비주얼이 가치 프리미엄 모피의 왕답다.

로열패밀리의 선택, 제이멘델

럭셔리를 대표하는 소재가 있다면 단연 퍼가 아닐까. 풍성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매력적인 퍼는 시대를 뛰어넘는 여성들의 로망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듯 영원한 여자들의 워너비 아이템인 퍼를 선보이는 제이멘델(J. Mendel)은 퍼 마니아라면 익히 들어봤을 브랜드로, 1870년 러시아 로열패밀리의 모피를 담당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까다로운 러시아 왕실의 안목을 만족시킬 만큼 퀄리티와 디자인이 뛰어난 제품을 선보이던 제이멘델은 1980년대 뉴욕을 베이스로 비즈니스를 확장해왔다. 현재 멘델 가문에 의해 5대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자일스 멘델이 퍼뿐만 아니라 드레스, 웨딩, 액세서리 컬렉션을 책임지고 있다. 제이멘델은 매 시즌 우아한 아름다움을 디자인에 담아내는 것이 특징인데, 밍크 같은 고급 소재와 실크, 울, 트위드 등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단순히 코트에만 국한되지 않는 패션 아이템임을 보여준다. 럭셔리 퍼 하우스로 입지를 다진 제이멘델은 2002년부터 정식으로 여성 컬렉션을 론칭해 패션 브랜드 하우스로 한 단계 더 발전해나갔다. 이후 브라이덜, 액세서리, 홈 퍼니싱 라인까지 더해 브랜드를 한 번 더 확장시켰다. 국내에서는 배우 김아중, 손예진이 시상식에서 제이멘델의 드레스를 선택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또 해외에서도 엠마 왓슨, 미란다 커, 산드라 불록 등 수많은 스타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특히 이번 F/W 시즌 제이멘델은 '이티널 글래머'라는 콘셉트로 컬렉션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일스 멘델이 진두지휘한 컬렉션으로, 그는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패션 포토그래퍼 리처드 애버턴이 촬영한 이미지에

서 영감을 받아 그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글래머러스한 옷들을 선보였다. 미니 길이에 슬릿이 들어간 스커트, 가슴이 드러나는 네크라인이 특징인 드레스를 입은 제이멘델의 새로운 뮤즈들이 런웨이를 장식했다. 이외에도 제이멘델 퍼 아틀리에의 독보적인 기술이 돋보이는 밍크 베스트와 플라워 프린트의 밍크 재킷, 브라운 벨벳 밍크 코트까지 선보여 제이멘델의 장인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신부들의 품격있는 예단을 위해, 제이멘델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들 사이에서 여전히 인기 예단 품목 중 하나인 퍼. 시택에 처음 보내는 선물인 만큼 좋은 소재와 유행 타지 않는 디자인의 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제이멘델은 퍼를 다루는 전통 깊은 기술력과 최고급 소재로 여성들을 매혹시킨다. 특히 퍼 특유의 부해 보일 수 있는 단점을 슬림한 실루엣으로 커버해 퍼 코트를 입고도 날씬해 보일 수 있도록 제작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기본적인 블랙 컬러부터 화려하고 풍부한 색감을 더한 제품까지 평생 소장할 수 있는 모피를 선보여 나이를 불문한 모든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외에도 제이멘델은 자칫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 퍼를 트렌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부드럽고 털의 양이 풍부한 밍크는 물론 우아한 광택이 특징인 담비 제품을 주로 선보이는 제이멘델의 퍼는 밀도가 높은 데다 반대 방향으로 털을 쓸어도 빠르게 원 상태로 복구된다는 점에서 우수한 모피의 특징을 느낄 수 있다. 최근에는 예단뿐만 아니라 젊은 층의 모피 수요가 늘고 있어 혼수 품목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이에 걸맞게 제이멘델에서는 폭스 퍼 코트를 비롯해 여러 가지 스타일로 연출 가능한 퍼 베스트, 지퍼 디테일을 더해 캐주얼하게 연출할 수 있는 퍼 점퍼까지 선보여 예비 신부들의 워시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준비를 마쳤다. 매서운 칼바람이 예상되는 이번 겨울, 제이멘델의 퍼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 제이멘델의 모든 제품은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강남점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79-6172 에디터 김지혜

3. 제이멘델의 워딩 라인. 4. 수련 모티브가 아름다운 니와카 수련 컬렉션 링.



1, 2. 모피부터 원피스, 액세서리까지 제이멘델의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이는 신세계백화점 강남 매장. 3, 4. 이티널 글래머라는 콘셉트로 색채하고 우아한 멋을 드러낸 제이멘델의 2015 F/W 컬렉션.

LUXURY & FEMININE WEAR

럭셔리를 상징하는 밍크 롱 코트, 풍성하지만 털 길이가 길지 않아 긴 코트임에도 부담스럽지 않다. 윤기가 흐르는 밍크 코트 안에 레이스 소재의 원피스를 매치하면 여성스러우면서 디아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 네이비 컬러 밍크 롱 코트 제이멘델.



only for One

웨딩 링만큼은 나만의 취향과 개성을 드러낸 특별한 제품을 원한다면 일본 하이 주얼리 브랜드 루시에, 니와카, 뉴욕 니와카를 한자리에서 모두 만날 수 있는 주얼리 부티크 '라뵈리에 뒤 레브' (L'atelier du Reve)를 방문해보길. 이 아름다운 부티크에서 오직 나만을 위한 주얼리와 함께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유니크하고 아름다운 주얼리를 만날 수 있을 테니.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나만의 주얼리

여자라면 누구나 나만의 아름다운 주얼리를 꿈꾼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순간이라면 더욱 그렇다. 일본을 대표하는 컨템퍼러리 오프 쿠티르 주얼리 브랜드 '루시에(Lucie)'가 더욱 특별한 것은 여자들의 이 아름다운 로망을 실현해줄 특별 주문 제작 시스템 때문이다. 아직 구상해 놓은 디자인이나 아이디어가 없다면 기존 디자인에서 소재, 질감, 두께 등을 취향과 예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다양한 옵션 서비스를, 오직 나만의 주얼리를 소유하고 싶다면 디자인에서부터 제작 공정 일체를 주얼리 전문가와 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루시에의 오프 쿠티르 시스템을 선택할 것. 이는 주문 제작을 통해 주얼리를 구입할 고객 중 대부분이 또다시 주문 제작을 의뢰할 만큼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로, 고객 한 명 한 명의 개성과 취향을 반영해 주얼리를 맞춤 제작하는 시스템을 갖춘 하이 주얼리 브랜드는 루시에가 유일하다. 루시에에는 핑크 골드와 플래티넘 골드를 주요 소재로 GIA 등급의 최고급 퀄리티의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며, 모든 공정이 장인에 의해 100% 핸드메이드로 이루어지는 만큼 희소성과 가치가 높다. 특히 로맨틱한 장미를 모티프로 한 루시에의 대표 컬렉션, '모즈 클라시크'는 장미빛 인생을 축원하는 의미까지 더해 가장 사랑받는 주얼리 라인이다. 루시에 주얼리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착용했을 때 그 진면모를 느낄 수 있는데, 아주 섬세하게 세공한 디테일과 주얼리 세팅 기술에서 루시에 장인들의 뛰어난 기술력과 장인 정신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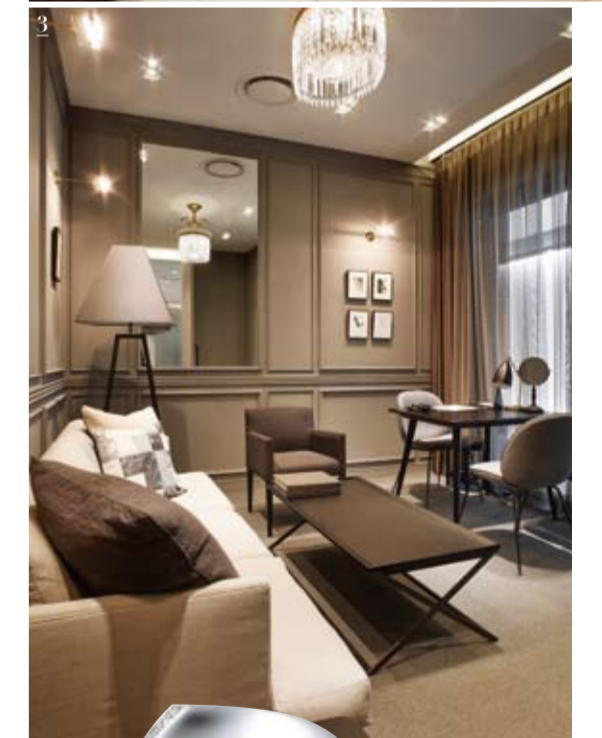
일본의 전통과 고유한 아름다움을 담다

루시에를 운영하는 니와카 그룹의 또 다른 브랜드인 니와카(Niwaka)와 뉴욕 니와카(N.Y. Niwaka)가 국내에 론칭했다. 루시에, 니와카, 뉴욕 니와카, 이 세 브랜드의 공통점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남다른 유니크함을 갖춘 주얼리 브랜드

드라는 것. 하이엔드 플래티넘 주얼리 브랜드 니와카는 일본 주얼리 장인 아오키 토시카즈의 천부적인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인 감각을 바탕으로 브랜드의 출생지인 교토의 유니크한 아름다움을 담은 컬렉션을 선보인다. 루시에의 섬세하고 여성적인 컬렉션과는 달리 금속 고유의 투박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질감을 최대한 살린 디자인이 돋보인다. 대체적으로 심플하지만 흐르는 듯 표현한 곡선 디자인, 정면은 물론 옆면, 안쪽까지 세세한 부분에 패턴을 넣거나 완벽하게 피니싱해 하나의 정교한 아트워크를 완성해간다. 계승자 부족과 니즈의 감소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 금속 조각 기술인 와보리(wabori) 장인이 제작하는 특별한 컬렉션이 따로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문양이나 사계의 아름다운 정경을 새겨 넣는 등 동양적인 색채가 짙은 주얼리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 니와카의 모든 주얼리는 장인의 자부심과 장인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소량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하는 철학이 확실한 브랜드 니와카의 제품이 아트워크를 완성해 한다면, 또 다른 브랜드 뉴욕 니와카(N.Y. Niwaka)는 보다 캐주얼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 남녀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뉴욕과 교토, 서로 다른 두 감성의 만남에서 탄생해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주얼리 컬렉션이라는 점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레조넌스 컬렉션을 꼽을 수 있는데, 미소 지을 때마다 서로를 보고 또 한 번 웃을 것이라는 로맨틱한 의미를 지닌 이 라인업은 볼륨감 있으면서도 심플한 디자인이 매력적인 뉴욕 니와카의 시그니처 컬렉션이다. 이 세 가지의 유니크한 하이엔드 주얼리 브랜드를 모두 만날 수 있는 라뵈리에 뒤 레브 매장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입점했으며, 8월부터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서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2-512-6914 에디터 권유진



1 (왼쪽부터 차례대로) 코오쿠에 노드카 다이아몬드 여성 링, 코오쿠에 노드카 남성 링, 코오쿠에 노드카 브랑슈 슬리퍼링, 브랑슈 슬리퍼링, 브랑슈 슬리퍼링 골드 링, 브랑슈 링 골드 링, 플로레팅 골드 다이아몬드 골드 링, 코오쿠에 노드카 골드 링, 레조넌스 커뮤 링 모두 뉴욕 니와카. 2, 3 라뵈리에 뒤 레브 매장 전경. 4 수련 모티브가 아름다운 니와카 수련 컬렉션 링.





a very savory Collaboration

마치 별을 마시는 것 같다는 표현으로 유명한 프레스티지 샴페인의 대명사 돔 페리뇽은 대다수 샴페인처럼 각기 다른 해에 만든 와인으로 블렌딩한 '논빈티지(non-vintage)'가 아니라 특정 연도산 포도로 빚어낸 빈티지 샴페인이다. 9년간의 셀러 숙성을 거쳐 올해 세상에 나온 돔 페리뇽 빈티지 2005. 검은색 과일 향이 느껴지다가 돔 페리뇽 특유의 은빛 광물 향이 고개를 내미는 이 특별한 빈티지를 위한 흥미로운 미식 프로젝트가 서울에서 진행 중이다. 페란 아드리아와 임정식, 세계적인 셰프들이 돔 페리뇽이 지닌 개성의 정수를 체험할 수 있는 창조적 협업을 펼치고 있다.



요리를 '순수예술'의 경지에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스페인의 국보급 셰프 페란 아드리아는 2011년 자신의 레스토랑 엘 불리(El Bulli)의 문을 닫았다. 장사가 되지 않아서 아니라 창조적 재충전을 위해 자체 휴식기에 들어간 것이었다. 그로부터 3년 뒤, 그는 자신의 창조적 지평을 넓히고 그 핵심 자신을 문화적 유산으로 남기자는 차원에서 엘 불리 재단을 설립했다. 그리고 올 초, 페란이 몸사리하는 샴페인 브랜드 돔 페리뇽(Dom Pérignon)이 엘 불리 재단과 손잡고 3년 여정의 장기 프로젝트에 돌입한다고 발표하자 전 세계 수많은 미식가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자신의 힘을 빌려 돔 페리뇽이 지닌 개성의 정수를 파악하는 다채로운 실험을 전개하는 '돔 페리뇽 디코프' 프로젝트. 이 기술 실험을 창조적 협업이 최근 한국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풍부한 경험을 넘어선 강렬한 '음식감을 내세운' 돔 페리뇽 2005년 빈티지와 뉴욕에서 한인 최초로 2년 연속 미슐랭 2 스타를 따낸 데 이어 '아시아 베스트 레스토랑 50' 순위에서 10에 선정된 임정식 셰프가 그 주인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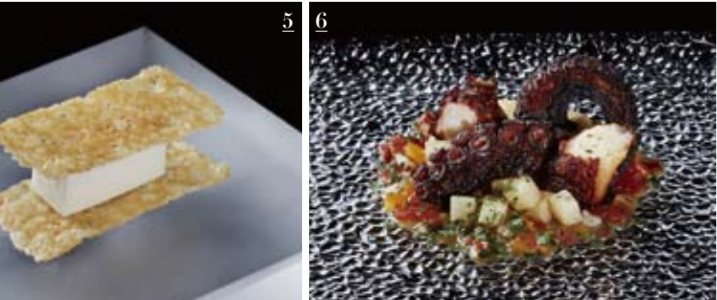
빈티지 샴페인의 대명사 돔 페리뇽의 향과 풍미를 살리는 창의적 도전
미각적 측면에서 '샴페인 정찬(champagne dinner)'이라면 요리보다 샴페인이 주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샴페인부터 잘 이해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돔 페리뇽처럼 빈티지에 따라 개성이 달라지는 빈티지 샴페인의 경우, 그 본연의 매력을 한껏 발산할 수 있는 미식 경험을 위해서는 '창조라는 말이 어울릴 만한 영감과 과정이 필요한 법이다. 그래서 임정식 셰프는 돔 페리뇽이 탄생한 프랑스 상파뉴 지역의 오방리를 방문하기도 했다. '사실 처음에는 신입견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설명도 듣지 않았어요. 그저 돔 페리뇽 빈티지 2005를 순수하게 음미하면서 궁합이 맞을 만한 식재료와 요리법을 떠올려봤죠. 그러한 발상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한 차례 시연회를 연 뒤, 나중에 프랑스로 넘어갔어요.' 한자에서 온갖 빈티지를 음미하면서 빈티지 샴페인의 세계를 나름 '재미'한 임 셰프는 돔 페리뇽의 하우스 셰프, 와인메이커와 함께 테이스팅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메뉴를 정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바로 여섯 가지 코스로 구성된 'This is a Dinner'이다.

This is a Dinner 프로젝트, 창의성과 맛을 한데 버무린 미각의 향연
원래 엘 불리와의 협업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의 이름은 'This is Not a Dinner'였다. 페란 아드리아는 한입에 쏙 들어가는 가벼이한 풍 부하고 섬세한 '스낵의 파라이드' 같은 메뉴로 유명한데, 지난 5월 도쿄에서도 돔 페리뇽을 위한 럭셔리 스낵을 선보였다. 그중 명품 을 달은 명품 스낵, 파르메산 아이스크림, 꽃잎과 요거트를 올린 생강 카나페, 숙성 고기 등 일부 스낵의 레시피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임정식 셰프는 페란의 스낵 메뉴 한 가지(파르메산 아이스크림)를 '낙점했다'를 골라 자신의 코스 사투를 맡도록 했고, 그 가 돔 페리뇽 빈티지 2005를 위해 개발한 다섯 가지 요리와 합쳐지면서 'This is a Dinner'가 된 것이다. '식재료 'dinner'라는 단어가 무색하지 않게 그의 코스 요리는 돔 페리뇽이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을 담고 있는 동시에 무겁지는 않지만 기분 좋은 포만감을 선사한다. '샴페인 정찬'이라면 특정 샴페인이 품은 복잡한 다양한 향과 풍미를 요리를 통해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므로, 저는 매 코스를 마친 다음 즐거운 애갯거리를 떠올릴 수 있도록 각각에 캐릭터가 있는 풍미를 창출하고 싶었어요.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 스 모킵, 저중해풍의 심클함, 토스티, 스파이시 등으로 표현했어요.' 그러한 캐릭터를 담은 그의 코스 요리는 다음과 같다. 부드러운 크 림 위에 올린 캐비어(smoky), 초리조를 넣은 소스를 곁들인 검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문어 요리(mediterranean), 고운 김 가루 를 뿌린 참치 화갈피(toasty), 매콤함이 살짝 느껴지는 소스를 기미한 육포 요리(spicy). 특히 샴페인과의 페어링에서는 잘 시도하지 않 는 스파이시함에 도전한 육포 요리는 경탄을 자아낸다. 돔 페리뇽 빈티지 2005의 두드러진 개성이 강렬한데, 약간의 매운맛을 샴페 인이 씻어주고 잡아준다는 느낌이 들어 참신한 매칭이라는 호평을 받아낸 것이다. 물론 미각에는 '달콤함도' 가 있다고 있다. 사색에 견 고류를 더한 디저트가 대미를 장식한다. 후식 백만(百萬)이 불어일식(不食)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코스는 임 셰프가 운영하는 서 울 청담동 정식당에서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다. 에디터 고성연

돔 페리뇽과 임정식 셰프의 만남 : This is a Dinner!
독창성을 고집하는 요리계의 아티스트 페란 아드리아와 한국이 자랑하는 임정식 셰프가 돔 페리뇽 빈티지 2005를 위해 만들어낸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는 프로젝트가 'This is a Dinner'다. 임 셰프가 운영하는 정식당에서 그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 샴페인의 향과 풍미를 북돋워줄 뿐 아니라 요리 그 자체로도 '즐거움'을 선사하는 정찬이다. 돔 페리뇽 세트 메뉴는 각각 11만원대 (점심)와 13만원대(저녁)이며, 돔 페리뇽 세트 메뉴 주문시 1병 33만원, 1진은 6만원, 10월 20일까지, 문의 02-517-4654



1 돔 페리뇽 빈티지 2005의 큰 특징은 '한자(contrast)'가 불어넣어졌다는 것인데, 8월에는 폭염, 9월에는 잿빛 비를 만나 대조적인 기온의 기운을 모두 품었기 때문. 2, 3 돔 페리뇽은 예술가로 추앙받는 요리사 페란 아드리아와 함께 샴페인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미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는 임정식 셰프와 손잡았다. 4 임 셰프와 돔 페리뇽 와인메이커 병상 사포르. 5, 6 임 셰프의 정식당에서 판매하는 돔 페리뇽 세트 메뉴에 포함되는 페란의 파르메산 아이스크림과 임 셰프의 문어 요리.



EOS M3 & 파워샷 D30

(왼쪽) 약 2,420만 화소의 CMOS 센서를 탑재했음에도 작고 가벼운 무게에 셀프 촬영이 가능한 틸트 터치 LCD 액정을 장착한 EOS M3. 야경과 음식 사진도 간단한 모드 조정만으로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다. 화이트 컬러의 보다가 사랑스러워 하니문을 위한 카메라로 제격이다.

(오른쪽) 신혼여행지에서 가볍게 들고 다니며, 원하는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는 파워샷 D30. 25m 방수 기능을 갖춰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손님도 기록할 수 있다. 28~140mm의 광학 5배 줌을 지원하기 때문에 수중에서 자유롭게 찍은 영상까지 선명하다.



Happy together

결혼을 앞둔 커플이라면 달콤한 하니문의 시간을 단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을 터. 열렬한 사랑의 기억을 캐는 카메라로 선명하게 남기고, 포토 프린터로 기록한다면 모든 순간이 생생해진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EOS 750D & SELPHY CP910

(왼쪽)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사진을 인쇄할 수 있는 스마트 포토 프린터 셀피 CP910. 내장 와이파이 기능을 통해 하니문의 달콤한 추억을 포토 북으로 완성할 수 있다. 신혼여행지에 가지고 가는 미니멀리즘 기법도 간편하다.

(오른쪽) 해니문의 추억을 보다 또렷하게 남기고, 움직임이 많은 반려견의 줄무늬, 아기의 사랑스러운 웃음을 고휘선으로 담고 싶다면 19포인트 울트라 AF 시스템을 장착한 EOS 750D가 필수다. 약 2,420만 화소의 신형 CMOS 센서와 디지털(DIGIC 6) 영상 처리 엔진을 탑재해 흔들거리는 손이 흔들림 없이, 정밀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셀피 CP910과 연동하면 원하는 사진을 손쉽게 출력할 수 있으며, 추억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문의 1588-8333

cutting Edge

필드 위의 자신감은 멋진 스윙만큼이나 스타일리시한 골프 웨어에서도 드러나는 법. 정통 골프 웨어 브랜드 명칭웨어의 커팅 엣지 컬렉션은 스윙에 최적화된 기능적인 요소는 물론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패턴으로 골퍼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세계 최초의 정통 골프 웨어 브랜드, 명칭웨어 골퍼를 즐기고, 더불어 스타일이 감각적인 골퍼라면 골프 웨어 브랜드 명칭웨어(Munsingwear)에 대해 익히 잘 알 것이다. 명칭웨어의 상징과도 같은 팬던트 마크 로고는 골퍼들 사이에선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 '럭셔리 골프 웨어의 상징'으로 여겨질 정도다. 1955년 세계 최초로 골프 웨어 전문 브랜드로 시작한 명칭웨어는 게리 플레이어(Gary Player), 알 기버게이(Al Geiberger) 등 세계적인 PGA 골퍼 선수들이 즐겨 입으면서 그 명성을 이어갔고, 뛰어난 기능성과 디자인을 인정받으면서 1970~80년대에는 금기야 펜던트 로고의 골프 셔츠가 골퍼들의 아이코닉한 필수 아이템으로 손꼽힐 만큼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는 골프 웨어 브랜드 역사상 굉장히 이례적인 일. 명칭웨어의 오랜 고객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 말하는 장점은, 기능성 소재를 사용해 착용감이 편하고 스윙 시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으며 여러 해가 지나도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이다. 이처럼 매 시즌 감각적이고 실용적인 골프 웨어 컬렉션을 선보이는 명칭웨어는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 접촉 냉감 소재와 절개 패턴이 포인트인 커팅 엣지(Cutting Edge) 컬렉션으로 스타일리시한 서머 골프 룩을 제안한다.

스타일과 스윙 모두 엣지 있게, 커팅 엣지 명칭웨어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커팅 엣지 라인은 기본으로 스트라이프의 절개 패턴을 사용해 스윙 시 골퍼의 움직임을 돕고 포인트 디테일로 디자인적인 요소를 두루 갖췄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특히 남녀노스 누구에게나 어울릴 만한 클래식한 디자인의 골퍼 피케 셔츠는 세로 스트라이프 커팅 패턴과 니트 짜임 절개 패턴을 적용해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 팔과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켜 오랜 시간 보습부송하고 시원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흡습속건 기능성 소재를 제작해 더운 여름철 필드에서 그 효과를 특히 발휘한다. 이와 함께 선보이는 커팅 엣지 냉감 이너는 피케 셔츠와 마찬가지로 흡습속건 기능을 갖춘 접촉 냉감 소재를 사용해 시원한 뿐만 아니라 얇고 몸에 피트되는 디자인으로 단독으로는 물론 베스트나 점퍼와 레이어링해 스타일링하게 연출할 수 있다. 'M'자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과 몸판 절개, 소매 배색 디테일을 준 점도 인상적이다. 멋진 스윙과 스타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명칭웨어 커팅 엣지 컬렉션은 8월부터 명칭웨어 전국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2007-8584 에디터 권유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세로 스트라이프 커팅 패턴이 돋보이는 그린 컬러의 커팅 엣지 골퍼 피케 셔츠, 화이트 컬러 커팅 엣지 골퍼 피케 셔츠 각 17만8000원. 신뜻한 옐로 컬러의 커팅 엣지 냉감 이너 13만8000원, 트렌디한 스니커즈 디자인과 깔끔한 화이트 & 베이지 배색이 특징인 여성 스파이크리스화, 스파이크리스인 에도 스파이크 솔 기능을 갖춘 명칭웨어만의 단독 솔을 적용했다. 28만8000원. 블랙 & 화이트 배색의 커팅 엣지 냉감 이너 13만8000원, M 로고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남성 스파이크리스화, 최고급 염소-사슴가죽을 사용해 가볍고 부드러운 착용감을 자랑한다. 29만8000원. 모두 명칭웨어.

MUN SING WEAR
CUTTING EDGE

미녀 아나테이너들의 엣지있는 골플룩

SBS골프 '김민아 아나운서'와 '신나송 프로'가 선택한 스윙을 위한 여름 엣지스타일. 스윙에 엣지를 더한 명칭웨어의 여름 필수 골프 스타일 룩, 커팅엣지를 제안한다.

신나송 프로가 선택한 커팅엣지 냉감 이너는 명칭웨어의 'M'자를 상기시키는 디자인이 포인트다. 흡습속건 기능을 갖춘 접촉 냉감 이너로 몸판 절개와 소매 배색 디테일이 디자인의 엣지를 살려주며, 김민아 아나운서의 커팅엣지 니트는 절개 포인트가 있어 백스윙 시 편안한 움직임을 돕는다. 커팅엣지 라인의 패턴 팬츠와 함께 세련된 니트 상의를 매치해 보자. 문의 _ 명칭웨어 02.2007.8584

- ① 신나송 프로가 입고 있는 면 폴리 스커트는 버튼으로 컬러포인트를 줘 다양한 상의와 크로스 코디가 가능하다. 21만8000원
- ② 명칭웨어의 'M'자를 상기시키는 디자인이 포인트인 상의는 커팅엣지 이너, 13만8000원
- ③ 김민아 아나운서가 착용한 제품은 텍스트 패턴과 앞판에 커팅된 디테일이 절제된 세련미를 보여주는 커팅엣지 니트, 21만8000원 / 하의는 과감한 그래픽이 들어간 패턴 팬츠, 24만8000원 / 그림젤 바닥 장갑, 7만8000원. 모두 명칭웨어



www.munsingwear.co.kr

editor's Pick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을 아름다운 신부로 거듭나고 싶다면 <스타일 조선포> 기자들이 추천하는 뷰티 아이템에 주목할 것. 평생 기억될 결혼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니가.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시세이도 화이트 루센트 토날 브라이트닝 세럼 웨딩 드레스에 걸맞은 하얀 피부 만들기 위해 중요한 피부관리 화이트닝의 명가 시세이도에서 선보이는 미백 세럼에 주목하자. 화이트닝 제품들이 자칫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기 쉬운데, 이 제품은 산뜻하고 촉촉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단, 화이트닝 효과를 제대로 보고 싶다면 단기간이 아닌 꾸준한 사용에 힘쓰는 게 중요하다. 30ml 13만15천원.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김자혜*

나스 아메리시스 립스틱 나뭇잎 청순하고 사랑스러운 신부로 만들어줄 코랄 핑크 컬러의 립스틱. 단 한 번의 발색으로도 예쁜 코랄 핑크 컬러가 입술 위에 선명하게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타마누 오일도 함유되어 입술의 수분과 건조함을 동시에 지켜준다. 4.2g 3만9천원. 문의 02-6905-3747. *by 아사스트트 에디터 박혜미*

링콤 그라디오스 스마지프루프 그라디오스를 사용한 이후로는 아이러닝을 따로 그리지 않는다. 강렬한 블랙 피그먼트가 속눈썹이 짙어 보이게 하고, 백조의 목을 닮은 스틱이 속눈썹 안쪽부터 눈꼬리까지 빈틈없이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하루 종일 완벽한 메이크업을 유지해야 하는 신부에게 제격이다. 10g 4만2천원. 문의 02-3497-9829. *by 아사스트트 에디터 박혜미*

사벨 레 티샤주 드 샤툴 트루드 핑크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아이러닝으로 둘러싸인 한 것도 없다. 수줍은 신부의 뺨을 담은 같이 컬러와 사벨의 아이러닝 트루드 패턴이 고급스럽다. 컬러가 은은하고 입자도 고와 자연스러운 발색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사용하면서 트루드 패턴이 사라짐에 조심스럽게 사용할 정도로 예쁘다. 5.5g 6만4천원. 문의 080-332-2700. *by 에디터 김자혜*

프래쉬 로즈 페이스 마스크 아삭이 웨딩 촬영으로 얼굴이 화끈거린다면 진정을 위해 같이 생면의 마스크 제품을 추천한다. 오렌 스테디샬러로, 출시 15년째인 맞아 같이 패턴의 한정판 패키지를 선보였으니 웨딩 기프트로 활용해도 좋다. 100ml 8만2천원. 문의 080-822-9500. *by 에디터 박혜미*

입생로망 탑 시크릿 플라워 레디언스 스킨케어 브러시 신혼여행지에서 맨 얼굴을 자신 있게 드러내고 싶다면 주목할 것. 이 브러시를 바른 후 피부 좋아졌다는 말을 여러 번 들을 만큼 본래 피부에서 광이 나는 듯 자연스럽고 은은한 광채를 더해준다. 더불어 피부 톤을 깔끔하고 화사하게 정돈해주는 탑 시크릿이도 불릴 만하다. 40ml 7만1천원. 문의 080-347-0089. *by 에디터 권유진*

베라 왕 클리워 프란세스 오 드 푸왈렌 오렌지 블러쉬, 모로칸 로즈 생면이 꽃이 가득한 정원에서 웨딩을 연상케 하는 플로럴 계열의 향수. 카팅린 화이트 오망의 보물과 왕관 모티브의 보물 캐이 사용스럽다. 브랜드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듯 웨딩드레스 디자인이 베라 왕의 이름만으로도 신부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할 것. 50ml 8만1천원. 문의 02-6924-6572. *by 에디터 김자혜*

클레드보 보베 샤프라프 사본 웨딩을 앞둔 어머님께 보다 생생한 클렌징 아이템을 추천한다면 단연 특별한 비누 사본이 제격. 케사미어 같은 감촉의 거품이 감동적인 텍스처는 안색 정화 기능까지 갖췄다. 클렌징 기능을 하는 바누지만 수분 에센스 한 병에 해당하는 허큘리온스를 담아 보습력으로 뛰어나다. 100g 13만9천원.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박혜미*

다름 블러쉬 바데로 사용하기 아까울 만큼 예쁜 패키지로도 이 블러쉬는 소장 가치가 있다. 더불어 보기 좋은 약이 먹기에도 좋다는 말이 있던 다름의 보보적인 예쁜 컬러는 무말괄량이 없다. 세 가지 톤의 핑크 컬러와 모브 컬러를 브러시로 블렌딩해 뺨에 동글리듯 터치한 뒤, 이마, 콧등에 살짝 쓸어주면 생기가 있는 신부 메이크업이 완성될 것. 7g 6만원. 문의 02-3438-9537. *by 에디터 권유진*

클라린스 토날 V 에센스 스킨케어 컨투어링, 페이스 라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안해 아시아 여성들의 사랑을 받은 클라린스의 V 에센스기 토날 케어 제품은 20년 완성되었다. 1998년 출시해 15년간 꾸준히 발전시켜 얼굴선 정리와 리프팅에 효과적이다. 50ml 9만4천원. 문의 080-542-9052. *by 에디터 박혜미*

이오카사미 퍼펙트 컴포트 비드크림 세럼, 팔, 등 라인을 드러내는 웨딩드레스를 입으려면 매끈하게 반짝이는 보디 피부 관리는 필수다. 이 크림은 제품에 쓰인 대로 스마를 받은 듯이 보이는 표면에 완벽하게 들어맞을 정도로 한 번만 발라도 촉촉하고 매끄러움이 오래 지속된다. 180ml 11만원. 문의 080-020-5757. *by 에디터 권유진*

엘비타 로얄젤리 세럼인드 결혼 준비로 피로했을 예비 신랑 신부에게 모두 추천하는 제품. 긴장감의 비탈은 면역력에 있는 말도 있지 않거나, 비타민 B 복합제, 아미노산 효소 등을 함유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이 제품은 꾸준히 써야 보면 그 효과를 느낄 수 있는데, 확실히 피로감이 일한 데다가 자주 쓰면 햇빛이 줄어들었다. 10ml X 20개, 9만5천원. 문의 02-3014-2997. *by 에디터 권유진*

조르지오 아르마니 클루이드 슈어 #로지 베이스 라인에서 클리퍼가 독보적인 제품을 선보이는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새로운 클로 제품. 피부에 우아하고 생생한 빛을 입혀주어, 빈틈없이 볼륨감, 화사함을 한 번에 표현한다. 여섯 가지 컬러 중 가장 선명한 핑크빛인 로지 컬러를 치크에 한 번 더 레이어링해도 좋다. 30ml 6만5천원. 문의 080-022-3332. *by 에디터 박혜미*



wild arctic Beauty

많은 이들이 동경하는 북유럽 라이프스타일. 소박함 속에 깃든 태생적인 세련미, 그리고 청정한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로움은 현대인들에게 꿈꾸는 삶. 그 자체로 다가온다. 북유럽 스타일을 대표하는 핀란드의 화장품 브랜드 루메네가 더욱 관심을 끄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일 것이다.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큼 광활한 핀란드 야생의 자연과 첨단 과학이 함께 만들어낸 루메네의 자신감은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할 만했다.

핀란드 국민 화장품 루메네, 천연 야생 베리류 피부부를 밝히다

루메네(Lumene)의 역사는 야생의 자연에서 비롯된다. 혹독한 자연환경에서도 놀라운 회복력을 자랑하는 북극 지방의 천연 원료는 루메네의 근간이 되었다. 1948년 핀란드의 제약 회사에서 출발한 루메네는 제약 분야의 노하우를 토대로 이를 순수한 자연 원료와 결합해 화장품업계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핀란드의 대표적인 호수소 일러진 룬멘네(Lummenne)호와 라티어로 '빛을 뜻하는 루멘(Lumen)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브랜드인 루메네는 핀란드의 국민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오프라 윈프리가 직접 사용해보고 극찬한 제품으로도 널리 알려진 루메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루메네 제품은 혁신적이고 전문화된 피부 과학 기술과 청정한 북극의 야생 원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물을 주원료로 하며 정직한 핀란드인의 기술력과 자부심으로 100% 핀란드 내에서 생산한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금수로도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한편으로는 깨끗한 자연을 보호하지 못해 인공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도 마시는 물은 사 먹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들었습니다. 핀란드에는 22만 개 이상의 호수가 있고, 특히 아무 곳이나 수도꼭지를 틀어 마셔도 될 만큼 수질이 깨끗한 나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죠. 또 루메네에서 메인 원료로 사용하는 북극의 야생 베리는 환경적 특성상 재배가 어렵고 일체의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오로지 사람의 손으로만 채취해야만 하는 까다롭고 청정한 환경에서 자생하는 것들입니다. 가장 깨끗한 물과 청정한 북극의 야생 베리



interview. Michel Dallemagne(Lumene CEO) "루메네는 강인한 핀란드의 생명력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입니다"

루메네가 아시아 시장 가운데 한국 시장을 처음으로 선택한 이유는? 루메네 본사에서는 러시아 & 컨설팅 회사와 더불어 일본, 홍콩, 중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뷰티 시장에 대해 조사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시장이 가장 발전했다는 것을 알았고, 한국 소비자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루메네 스킨케어와 가장 잘 맞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무엇보다도 K-팝, K-드라마와 같은 한류, 즉 한국의 문화가 아시아 곳곳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고, 한국에서의 성공은 곧 아시아에서의 성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뷰티의 본고장 한국에 루메네를 론칭하게 되었습니다. **핀란드 본사에서 생각하는 한국의 뷰티 시장은?** 한국은 뷰티 시장에서 가장 치열하고 발전된 시장 중 하나예요. 한국의 훌륭한 로컬 브랜드들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글로벌 뷰티 브랜드 역시 한국의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무엇보다 탁월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도 많고 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뷰티 시장은 더욱 매력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요인인 북극산 베리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핀란드는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백야와 하루 종일 해가 뜨지 않는 흑야의 기후를 보냅니다. 또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식물 입장에서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지만 북극의 베리는 그 혹독하기만큼 치열한 환경을 딛고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재배한 베리와 비교하면 색이 더 진하고, 더 작고, 더 단단하죠.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항산화 에너지 역시 양호한 환경에서 자란 베리보다 훨씬 더 풍부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항산화에 유익한 노화방지 효과를 주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북극의 야생 베리가 품고 있는 그 뛰어난 항산화 에너지를 고스란히 담으면 루메네의 제품은 북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유럽 시장에서도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국 여성도 틀림없이 만족하리라 믿습니다. **핀란드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 알려주세요.** 핀란드의 정서에 대해 표현하는 '사슈(sisu)'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웃 강대국의 침해를 받았으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강인한 핀란드의 생명력을 뜻하는 말이지요. 어려움 속에서도 핀란드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본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당당함과 강인함이 핀란드 여성의 대표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루메네는 그런 핀란드의 감성을 대변하는 브랜드입니다.



1 22만 개의 호수와 저지대 무 숲으로 상징되는 핀란드의 청정하고 광활한 자연. 백야와 흑야가 반복되는 북극의 혹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야생 베리가 루메네의 주요 성분이다. 2, 3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야생 베리들. 직접 손으로 따서 천연 과학 기술을 통해 루메네의 다양한 제품으로 재탄생시킨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며 풍부한 비타민 C 성분이 피부를 화사하게 만들어준다. 4 핀란드의 국민 브랜드 루메네의 로열 카리나 코르비, 핀란드의 강인함으로, 핀란드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유명 피겨 선수다. 5 루메네 매장이 있는 헬싱키 시내의 스웨덴 문화점 건립. 6 루메네는 생장보다 다양한 라인의 제품을 갖춰 섹스의 폭이 아주 넓은 것이 매력. 특히 바타민 C 라틴어 세럼(사진 오른쪽)은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한 인기를 자랑하는 스타 아이템이다.





all-inclusive luxury Res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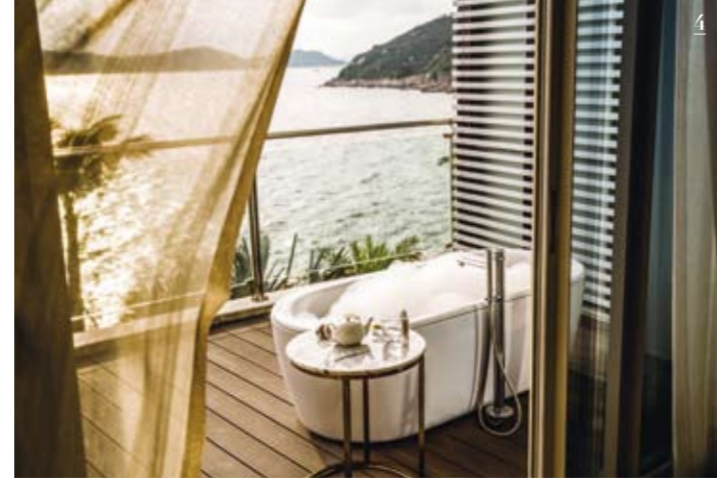
긴 시간을 내지 않아도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럭셔리 리조트. 아이들은 키즈 클럽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고 식사와 음료까지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파라다이스를 찾았다면, 새롭게 론칭한 클럽메드 동아오 리조트로 향해보자.

홍콩과 프라이빗 아일랜드를 한 번에

클럽메드의 매력을 아는 이들은 다른 리조트로 발길을 돌리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올 인클루시브(all-inclusive)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휴가에 동반하는 모든 스트레스 요인을 배제한 클럽메드에서는 항공권과 숙박, 식사, 알코올 음료까지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그뿐 아니라 대부분의 워터 스포츠와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키즈 클럽 이용까지 사전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이 모든 클럽메드의 프로그램을 보다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G.O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 이들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나이트 엔터테인먼트의 주인공이 될 뿐 아니라 클럽메드를 찾은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액티비티를 체험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어준다. 휴가에 대해 관대하고 자유로운 유려미인의 정신을 지닌, 프랑스에 근간을 둔 클럽메드에게 가능한 서비스다. 앞서 이야기한 클럽메드의 시스템에 매력을 느꼈다면 이제 전 세계 80권이 넘는 클럽메드 체인 리조트 중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인지가 남아 있다. 그중 국내에서 손쉽게 갈 수 있고 가장 최근에 문을 연 럭셔리한 리조트를 꼽으라면 클럽메드 동아오 아일랜드(Club Med Dong'ao Island) 리조트를 들 수 있다.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단 2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홍콩이 동아오 리조트를 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홍콩과 마카오에 인접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곳은 국내에서 홍콩 공항으로 이동한 뒤 중국 주하이(Zhuhai) 지주항까지 페리로 1시간, 이후 지주항에서 동아오 리조트까지 클럽메드 전용 페리로 약 45분이 소요된다. 생기 넘치는 야시장과 화려한 야경으로 유명한 홍콩은 다이내믹함 그 자체다. 홍콩에서 1박을 한 후 배를 타고 이동하면 지중해를 연상케 하는 동아오 아일랜드에 닿는다. 짜릿한 홍콩 시티 투어와 동아오 아일랜드 리조트에서의 느긋한 휴양이 동시에 가능한 것이다. 혹은 홍콩 이외에 마카오를 경유하는 일정도 준비되어 있으니 두 곳 중 원하는 도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최상급 리조트에서의 액티브한 휴가

중국 광둥 성 주하이 남동쪽에 위치한 그림같이 아름다운 아일랜드 군도, 그중에서도 훼손되지 않은 자중해식 해변을 연상케 하는 클럽메드 동아오 리조트의 가장 큰 장점은 5T, 4T 등급이 공존하는 럭셔리 리조트라는 것이다. 여기서 'T'는 트라이던트(trident, 클럽메드의 상징인 삼지창)의 약자로 호텔의 등급을 표기하는 별(성급)과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5T인 동아오 리조트는 5성급 호텔에 준하는 시설로 클럽메드 리조트 중 컨디션이 최상급이라고 보면 된다. 총 72개의 객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전 객실에 오션뷰 또는 가든뷰의 전용 발코니를 배치해 휴양지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전용 수영장이 딸린 풀빌라 양식의 파빌리온 스위트룸이 준비되어 있을 만큼 고급스럽다는 것도 특징. 넓은 해변을 중앙에 두고 안쪽에는 4T 등급의 객실 3백35개가 모여 있는데, 기존 클럽메드 리조트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이기에 인피니티 풀을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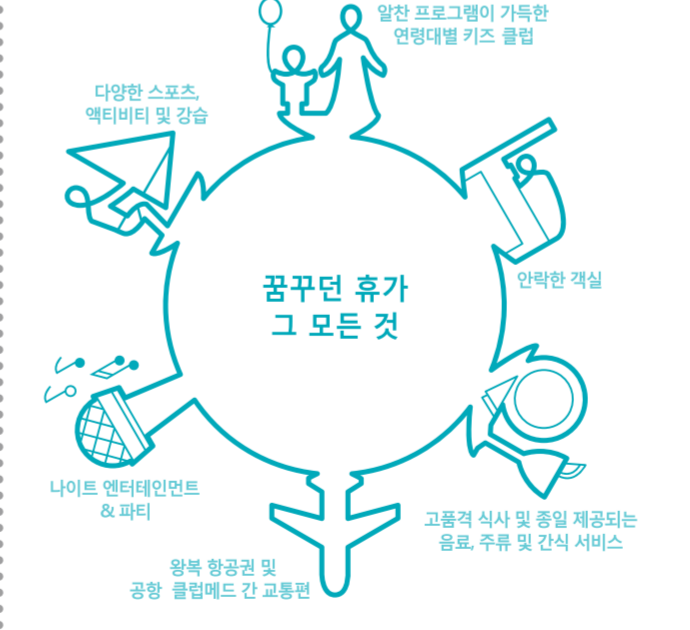


1 클럽메드 동아오 아일랜드 전경. 아열대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22도로 온화한 편이다. 지중해식 프리미엄 휴양이라는 테마로 럭셔리한 서비스를 담았다. 2, 3 바다로 이어진듯 아름답게 펼쳐진 인피니티 풀, 야외 수영장과 실내 수영장, 어린이를 위한 키즈 수영장 외에도 익스클루시브 컬렉션 이용객을 위한 전용 수영장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 4 테라스에 로맨틱한 야외 욕조를 배치한 5T 리조트의 풀, 5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비용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클럽메드 여름 리조트의 가장 큰 매력이다. 세일링, 사핑, 카약 등이 있다. 6 클럽메드 동아오 리조트 확장 오븐을 기념해 특별한 파티가 열렸다. 7 모던하고 럭셔리한 인테리어에 더해진 아름다운 바다 전경은 리조트의 풍격을 높인다. 8 전 세계에 리조트를 운영하는 클럽메드는 다양한 국제의 셰프와 스태프들이 멋진 메뉴를 만들어냈다. 47의 레스토랑에서 개성 있는 요리를 즐길 수 있는데, 클럽메드 동아오 리조트는 현지 수산 시장과 인접해 다양한 시푸드를 선보인다. 9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기에 하이킹과 트레킹, 자연거로 보다 액티브한 휴가를 경험할 수 있다.



All About Club Med

클럽메드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의 여섯 가지 요소 양복 항공권과 공항-리조트 간 교통편, 인력한 객실은 물론이고 전 일정 제공하는 풍성한 먹거리, 오픈 바에서 무제한 제공하는 각종 음료와 주류, 다양한 스포츠와 오락 활동, 아이와 부모의 완안을 위한 키즈 클럽, 놀림도록 흥겨운 밤을 만들어주는 나이트 엔터테인먼트까지 하나의 패키지 요망에 포함된다.



꼭 알아둘 용어 클럽메드에서 만날 수 있는 상주 직원으로, 대방면으로 도움을 주는 '발방미 인형' 리조트 전문가는 G.O(gentle organizer), 리조트 고객은 G.M(gentle member)으로 통한다. 2015 추석 & 10월 연휴 가족 휴가 프로모션 클럽메드에서 올 추석과 10월 연휴 에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특별한 가족 여행을 위해 최선의 가족 여행지로 각광받는 클럽메드 리조트 BEST 7의 특가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오는 8월부터 10월 29일까지 출발하는 4박 5일 일정으로, 항공과 숙박, 전 일정 식사, 키즈 클럽 등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된 에어패키지 여행을 성인 최저 1백4만 원대(세탁비 비자 기준, 유류 할증료 및 회원비 포함)부터 즐길 수 있다. 단, 출발일별 한정 수량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예약 문의 클럽메드 코리아 본사 홈페이지(www.clubmed.co.kr)를 통해 온라인 예약할 수 있다. 문의 02-3452-0123

라보는 시원한 조망까지 누릴 수 있다. 클럽메드에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것은 바로 G.O들과 다채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키즈 클럽이다. 아이와 따로 또 같이 보내는 진정한 휴식을 원한다면 클럽메드만 한 곳을 찾기 어렵다. 전 세계 곳곳에서 모여들어 클럽메드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G.O들과 함께하는 동아오 아일랜드 키즈 클럽은 키즈 풀과 놀이터를 갖추고, 수영장 게임, 미니 종합 스포츠가 준비되어 있다. 아이 돌보는 데 숙련된 전문 G.O들이 아이를 세심하게 보살피며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나이별로 세심하게 구성된 프리 클럽(만 2~3세, 유료), 미니 클럽(만 4~10세), 주니어 클럽(만 11~17세, 방학 기간 동안 운영)으로 구성된 키즈 클럽에서 연령대가 비슷한 각국의 친구들과 함께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소통하며 보내는 시간은 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추억이다. 아이들이 키즈 클럽에서 시간을 보낼 동안 비치로 나서는 다양한 해양 스포츠와 레저 활동이 준비되어 있다. 세일링, 카약, 페달 보트, 비치 발리볼 등도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비용 없이 G.O의 가이드 아래 즐기면 하면 된다. 워터 스포츠 경험이 전혀 없다 해도 G.O들이 친절하고 쉽게 체험을 도와준다. 워터 스포츠가 지겹다면 자전거와 하이킹, 트러킹, 골프도 준비되어 있다. 동아오 아일랜드의 지형은 해변을 끼고 산이 둘러싸고 있어 풍경을 바라보며 자전거를 즐기기도 좋다. 리조트에서 손쉽게 액티비티를 즐기고 싶다면 공중그네와 양궁, 번지 바운스, 요가, 배드민턴, 농구, 탁구 등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를 원하는 대로 체험할 수 있다. 초급자는 물론 전문적인 수준의 강습까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올-인클루시브,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미식 여행을

휴가에서 먹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있을까. 세계 각국의 요리와 리조트가 위치한 지역의 특선 요리를 모두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클럽메드 리조트의 장점이다. 물론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클럽메드의 모토에 따라 동아오 아일랜드 리조트에서도 이 모든 것이 사전 비용에 포함되어 있기에 그저 즐기면 하면 된다. 전 일정 식사, 무제한 음료와 주류, 나이트 엔터테인먼트까지 모든 것이 자유롭다. 총 4개의 레스토랑과 5개의 바는 여행 일정 내내 다채로운 메뉴를 제공한다. 레스토랑 프렌치 리비에라에 사는 세계 각국의 요리와 중국 전통 요리를 뷔페식으로 즐길 수 있고, 사전 예약이 필요한 시푸드 레스토랑 피시에서는 현지에서 조달한 신선한 해산물 일품 요리를 제공한다. 프랑스식 패이스트리와 베이커리 등 지중해식 휴양지 분위기를 자아내는 카페 메디테라니안과 스낵 바 워터 사이드에서는 언제라도 가벼운 간식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마시는 즐거움이 더해진다. 메인 바 몬테카를로는 연회장 같은 화려한 분위기가 특징이고, 리조트에서 보이는 파노라마 뷰를 즐길 수 있는 피아노 바는 휴양지에 왔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 리조트 밖 해변에는 비치 바까지 별도로 준비해두었으니 진정한 올-인클루시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또 프리미엄 리조트의 스위트룸 투숙 고객과 익스클루시브 컬렉션 투숙 고객만을 위한 프라이빗한 티 라운지도 마련해 차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클럽메드가 이야기하는 꿈꾸던 휴가, 그 이상의 행복이 아닐까. 에디터 배미연

SHOWROOM



프리다 까빌리노 스투루조 백 프리다는 까빌리노 스투루조 백을 선보인다. 매혹적인 레오파드 무늬의 송치카와 강렬한 원색의 타조가죽이 어우러진 이리안은 프리다 인사이드 백과 프리다 두블레 백으로 구성되었다. 소가죽과 타조가죽 특유의 자연스러움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문의 02-3218-5331

버버리 티어드 프린지 버킷 백 버버리는 스웨이드 프린지 디테일이 돋보이는 티어드 프린지 버킷 백을 선보인다. 이번 시즌 키 아이템으로, 다양한 소재와 디테일, 스몰의 2가지 사이즈로 출시된다. 최상급 송아지가죽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해 벨벳처럼 부드럽고 가벼운 것이 특징. 가방 내부에 따로 떼어서 사용할 수 있는 포켓 스타일의 파우치가 있다. 문의 02-3485-6536

히트맨 국내 론칭 1주년 기념 행사 개최 히트맨이 국내 론칭 1주년을 기념하며 히트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세대를 뛰어넘는 여성이라는 콘셉트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클래식한 복장을 한 모델들이 클래식 라인인 트루트 빌딩 컬렉션과 올해 말 출시 예정인 알루미늄 재질의 모던한 7R 컬렉션 등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문의 02-3448-5914

브로이어 국내 론칭 브로이어가 국내에 론칭한다. 프랑스에서 디자인해 이탈리아에서 생산하는 프랑스 비즈니스 캐주얼 브랜드인 브로이어는 우아한 실루엣과 클래식한 감성을 표현하며 편안함을 강조하는 컬렉션을 선보인다. 오는 8월 말 현대백화점 본점, 롯데백화점 본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2106-3592



작가 케이트 벨름과 함께 파리 곳곳의 신비로운 장소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했다. 구슬과 같은 디테일의 이젤한 스틸레토 스피어 힐, 베틀 장식 펠트스와 사이하이 스트레치 부츠, 그리고 페이퍼트 가죽 소재의 미스 비브 백이 그녀와 함께했다. 문의 02-6905-3370

제이멘델 2015 F/W 컬렉션 제이멘델은 뉴욕 나이트라이프를 담은 2015 F/W 컬렉션을 선보인다. 슬릿이 들어간 미디스커트, 골드 자수로 장식해 반짝이는 미니드레스와 전체에 스팽글이 달린 램프커튼은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풍긴다. 특히 제이멘델의 독보적인 예술성이 드러나는 파는 주름 디테일의 셔츠 드레스와 브라운 벨벳 코듀로이 코트에 매치해 캐주얼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링을 보여주었다. 문의 02-3479-6172

로베르 콜레저리 달란 로베르 콜레저리는 1970년대 무드를 재해석한 2015 F/W 컬렉션을 선보인다. 여성미가 두드러지는 달란은 볼드하면서도 세시함이 느껴지는 트윈 디테일이 돋보이는 플랫폼 힐로, 밀라리리 모스, 린 데레 체리, 카디널 머플러를 더해 팝한 감성을 불어넣었다. 문의 02-310-5286

펜디 2015 프리콜 컬렉션 펜디는 2015 프리콜 컬렉션을 선보인다. 담요에서 영감을 받은 오버사이즈 코트는 기하학적인 패턴을 더해 독창성을 자아내며, 큰 폭스를 트림한 백 벅의 눈 디테일 슈웨터와 레더 바이커 재킷이 돋보인다. 또 매트로 크리스탈 장식의 바게트 백과 역동적인 컬러의 부츠, 앵글부츠, 그리고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크로코 테일의 슈즈와 패를 가미한 스니커즈는 워트와 스타일링함을 함께 담았다. 문의 02-2056-9023

FASHION



LIFESTYLE



포르쉐 랑망 24시 레이스 17번째 종합 우승 포르쉐가 지난 6월 프랑스에서 개최된 제83회 랑망 24시 내구 레이스에서 1, 2위를 모두 석권하며 17번째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을 차지한 포르쉐의 가장 혁신적인 모델 '포르쉐 919 하이브리드'는 다운 사이징을 가진 티보 엔진과 2개의 에너지 리카버리 시스템용 적용해 통합 약 1천 마력의 출력을 자랑한다. 문의 02-788-7321

민성웨어 커팅 엣지 라인인 민성웨어가 스웨치 최적화된 커팅 엣지 라인을 선보인다. 스트라이프의 잘게 패턴을 사용해 스윙 시 골퍼의 움직임을 돕고, 포인팅 디테일로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골프 파커는 흡수속건의 기능성 소재를 갖춰으며 스트레치 오픈 셔츠는 세로 스트라이프 잘게 패턴을 사용해 편안하면서도 청량감을 준다. 또 방감 이너는 잘개와 소매 배색 디테일이 포인트로, 스윙 시 활동적이다. 문의 02-772-3690

돔 페리뇽 빈티지 2005 돔 페리뇽은 정식당의 일일식 셰프와 협업해 '디스이즈 어 다이를 선보인다. 일일식 셰프는 돔 페리뇽 빈티지 2005 중 57자를 제안하며, 엘 블리 재단 페란 아드리야의 스낵 메뉴와 함께 7월 중순부터 3개월 동안 판매한다. 또 이 돔 페리뇽 세트 메뉴를 주문하는 고객은 돔 페리뇽 빈티지 2005를 특별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문의 02-2188-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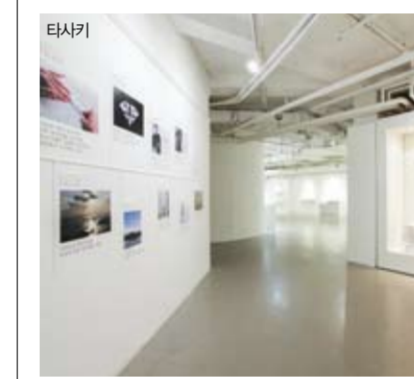
JEWEL

루시에 에두알 브레이슬릿 루시에는 반짝이는 별에서 영감을 받은 '에두알 브레이슬릿'을 소개한다. 앞·뒷면이 똑같은 에두알 모티브와 두 번째로 보이는 별을 의미하는 0.02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가느다란 체인에서 섬세함이 느껴진다. 청명한 느낌을 자아내는 플래티넘 소재가 아름다워, 발목에 착용할 수 있는 앵글로릿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문의 02-512-6914

스위로브스키 듀오 컬렉션 스위로브스키에서 미란다 카가 디자인한 캡슐 컬렉션 듀오 컬렉션을 선보인다. 미란다 카가 입고 있는 7캐럿인 반짝임, 사랑, 기쁨, 행운, 수호, 우아함의 의미를 담아 6가지 스타일의 참으로 표현했다. 심플한 스타일부터 로맨틱하고 클래식한 스타일까지 연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레이어링이 가능해 실용적이다. 문의 1661-9060

티파니 웨딩 링 컬렉션 티파니가 37가지 스타일의 웨딩 링 컬렉션을 제안한다. 세계 최초로 6개의 프로그래밍 다이아몬드를 들어 올려 광채를 극대화한 클래식한 티파니 세팅 링과 두 줄의 비드 세팅 다이아몬드의 화려함이 돋보이는 티파니 솔리스트*, 가장 최근 출시된, 밴드 양 끝이 하나로 모여 균형 이르고 촘촘히 세팅한 다이아몬드가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하모니 링'으로 구성되었다. 문의 02-547-9488

반클리프 아펠 피에르 아펠 웨 디시 & 웨 디시 타이피스 반클리프 아펠은 자신 경력 행사인 '오리 워치'를 위해 정밀 이유와 미닛 레트로그래프 디스플레이를 자랑하는 듀얼 타임 워치 피에르 아펠 웨 디시 & 웨 디시에 타이피스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인다.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블루 옐리게이트 스트랩이 돋보이는 이 워치는 현재 워치의 시간과 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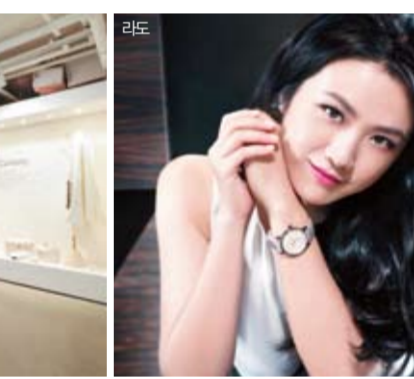


의 세컨드 타임 존의 시간 모두를 알려주며, 플래티넘 마이크로 로터를 장착해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문의 02-3440-5660

리처드 밀 퍼트너십 10주년 컬렉션 리처드 밀은 펠라페 마사와의 파트너십 10주년을 기념하며 2개의 한정 에디션 10주년 컬렉션을 선보인다. 블루와 옐로로 이루어진 RM011과 RM056은 시계장에는 펠라페의 로고와, 시계의 뒷면에는 펠라페의 사인을 새겼다. 특히 RM011의 사파이어 다이얼 위에는 12 대신 펠라페의 레이싱 숫자인 19가 적혀 있다. 각각 10개씩 1백 개 한정 생산된다. 문의 02-2230-1288

타사키 큐리어시티 프레젠테이션 타사키는 지난 7월 새로운 주얼리 컬렉션 큐리어시티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드라미틱한 스토리를 지닌 장구한 물건을 담은 큐리어시티 컬렉션에는 깊은 비탄 속에서 반짝이는 상어의 턱, 수백여 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조개, 형태가 유기적인 산호초의 아름다움, 나비와 새가 울며 모티브로 삼았다. 오는 10월부터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61-5558

라도 다이아미터 플라자 & 하이테크 세리믹 라도는 12개의 다이아몬드 인텍스로 이루어진 배아자색 가죽 스트랩의 다이아미터 플라자 & 하이테크 세리믹을 선보인다. 이는 지난 6월 중국 베이징 론칭 행사에서 홍보대사 탕웨이와 착용해 주목받은 여성 시계로 우아하고 모던한 디자인이 어엿한 룩에나 어울림에 매치되는 것이 특징. 메탈처럼 보이지만 하이테크 세리믹 소재로 만들어 라도의 혁신 기술을 엿볼 수 있다. 문의 02-2639-1964



파코라반 원일리언 코롱 파코라반은 프레시한 향이 특징인 '원일리언 코롱'을 출시한다. 원일리언에 만다린의 상쾌한 향을 더해 여름에 가볍게 사용하기 좋은 향수로, 은은하게 퍼지는 향이 시크하고 자적인 남성을 연상시킨다. 특히 백인장자의 금고를 형성해 한 기온의 골드 보틀에 투명함을 실려 더욱 시원하고 가벼워진 향을 표현했으며, 로고를 양각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문의 02-3443-5050

사벨 가을 메이크업 컬렉션 사벨은 우아하고 따뜻한 컬러의 가을 메이크업 컬렉션을 선보인다. 주로 카키와 브라운, 싱그러운 그린과 화려한 레드 컬러로 구성된 이번 컬렉션은 가을의 자연을 연상시킨다. 아이 메이크업 팔레트는 브라운부터 라스트 오렌지 등 다채로운 컬러를 표현했으며, 무지갯빛 새 톤과 잔디의 편안함, 붉게 물든 단풍잎의 광채 등을 립 메이 크업 제품에 담아냈다. 문의 080-332-2700

디올 캡취 토탈 르 세럼 이오 디올에서 아이 세럼 캡취 토탈 르 세럼 이오를 선보인다. 혁신적인 듀얼 디자인의 내장형 360도 애플리케이션이 매끄럽고 탄력 있는 눈매로 가꿔준다. 특히 쿨 터치 효과로 눈가의 피로가 완화되고 미세 순환이 활성화되어 효능을 더욱 극대화한다. 문의 02-3438-9631

에스티 로더 매직 스모키 파우더** 새도우 스틱 에스티 로더에서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을 위한 '매직 스모키** 파우더' 새도우 스틱을 선보인다. 실리한 팬을 타입의 파우더 새도우, 라이너부터 새도까지 활용 가능하다. 특히 8시간 동안 컬러가 선명하게 지속되는 것이 특징. 우아하고 옅은 컬러부터 강렬하고 선명한 컬러까지 8가지로 출시된다. 문의 02-3440-2522

입생로랑 Y-세이프 입생로랑에서 매끈하고 또렷한 Y존을 위한 Y-세이프(Y-shape)를 제안한다. 얼굴, 목, 쇄골 선으로 이어지는 Y존 피부를 탄탄하게 조여주어 탄력 있는 피부를 선사하는 타이팅 탄력 컨센트레이터와 촉촉하게 피부를 채워주며 볼륨을 더해주는 타이팅 탄력 강화 크림, 그리고 효능을 극대화하는 마사지를 함께 사용하면 여러 보이는 피부로 가꿀 수 있다. 문의 080-347-0089



BEAUTY



더 뮤지컬 어워드에서 역대 최대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올해의 뮤지컬상을 비롯해 총 8개 부문에 석권한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입증한 뮤지컬 <엘리자벳>이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지난 6월 막을 올렸다. 여름철은 공연계에서 비수기로 여겨지지만, 뮤지컬 <엘리자벳>은 2012년, 2013년 공연에서 예매를 시작하며 단숨에 예매율 1위에 등극하며 놀라운 객석 점유율을 기록, 전 회 전석 가림박수를 이끌었다. 역사 가장 아름다운 황후인 엘리자벳이 암부르크 왕궁에 들어오면서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오스트리아 만담을 모티브로 '죽음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의인화해 독특한 캐릭터를 탄생시켜, 실존 인물과 판타지적 요소의 결합을 통해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다채로운 캐릭터만큼이나 화려한 무대예술 3백70여 명이 등장하며, 2중 회전 무대와 3개의 리프트 등 합스부르크국의 화려하고 상대한 궁전을 재현해 보는 재미를 극대화했다. 또 뮤지컬 음악으로는 이례적으로 앨범 판매 차트 상위권에 오를 만큼, 극적인 드라마를 완성해주는 음악은 관객의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특히 2년 만에 돌아온 이번 무대에서는 2012년, 2013년 공연에서 활약하며 티켓 파워를 보여준 옥주현, 전동석, 김수용, 최민철, 이자훈 등이 무대에 올라 2년 전의 감동을 다시 한번 재현한다. 이외에도 대작 뮤지컬에 출연하며 특유의 단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뮤지컬 배우 조정은과 연기 내공이 탄탄한 뮤지컬 배우 겸 탤런트 신성록, 그리고 이번 공연으로 뮤지컬 무대에 첫선을 보이는 가수 최동욱 등이 합류해 풍성함을 더했다. 뮤지컬 <엘리자벳>은 오는 9월 6일까지 상연되며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 가능하다. 문의 1577-6478

